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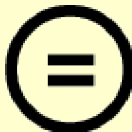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서술된 단일민족 의식과
서술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 고대사를 중심으로 -



2016년 6월

안 동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역 사 교 육 전 공

백 성 현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서술된 단일민족 의식과 서술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 고대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김 중 복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백 성 현

백성현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 0 1 6 년 6 월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 안 상 준



위원 : 김 중 복



위원 : 태 지 호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

차 례

| | |
|---|----|
| 1. 머리말 | 1 |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
| (2) ‘민족’ 개념과 ‘민족’ 형성에 대한 이론 정리 | 3 |
|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식 | 10 |
| 2.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5~1963) | 16 |
| (1) 일민주의를 바탕으로 단일민족 의식 강조, 북진통일의 당위성 확보 | 16 |
| (2) 민족기원론과 민족형성론 입장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 17 |
| 3.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3) | 29 |
| (1) ‘조국근대화’ 달성을 위한 단일민족 의식 고취 | 29 |
| (2) 민족기원론 입장이 증가한 교과서 서술 | 31 |
| 4.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81) | 47 |
| (1) 국사교과서의 국정제 전환과 민족의식에 입각한 국사교육의 강화 | 47 |
| (2) 국정화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된 내용이 취사선택 된 교과서 서술 | 49 |
| 5.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2~1987) | 53 |
| (1) 신군부의 집권 명분 확보를 위한 민족의식 교육의 지속 | 53 |
| (2)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지속된 교과서 서술 | 55 |
| 6.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7~1992) | 58 |
| (1) 교육과정 내용의 지속과 국사교과서의 내용 보강 | 58 |
| (2) 민족형성론에 중점, 민족기원론도 잔존한 교과서 서술 | 59 |

| | |
|---|-----|
| 7.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 | 61 |
| (1) 민주화·세계화의 여파로 개방적 민족주의 강조와 국사교육 약화 | 61 |
| (2) 표면적인 개방적 민족주의, 실제로는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교과서 서술 | 63 |
| 8. 제7차 교육과정 시기(1998~2007) | 67 |
| (1) 민주 시민·세계 시민의 자질 함양과 국사교육의 약화 | 67 |
| (2) 민족형성론 입장을 중시한 교과서 서술 | 68 |
| 9.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2009) | 72 |
| (1)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한국사 교육의 강조 | 72 |
| (2) 검정제로 다양한 민족 형성 시각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 73 |
| 10.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10~2015) | 84 |
| (1) 정쟁으로 이름만 바뀐 한국사 교육과정 | 84 |
| (2)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 탈피와 잔존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 85 |
| 11. 맺음말 | 99 |
| 참고문헌 | 102 |

1. 머리말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역사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역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교재로 중시된다. 최근에는 EBS 교재, 학습지, 시청각 자료 등 교과서 외의 다른 학습 자료들이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도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역사교과서는 당대의 가치관·사회관·문화관 및 역사의식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로 인해 교과서는 물론 이를 기초로 구성된 학습지들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²⁾ 특히 한국사 교과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이른바 ‘국책과목(國策科目)’으로 중시되어 왔기에 한국사교과서는 당대의 지배 이념, 사회적 배경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러한 체제 아래 집필된 한국사교과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밟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형성시키는 도구로써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역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한국사교과서가 한국인이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거쳐 오면서 약화되어 왔지만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하여 서술된 한국사교과서의 내용은 그것으로 교육 받은 당시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인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³⁾ 현재 2009 개정과정 한국

- 1) 성대훈,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 서술 문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쪽.
- 2)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과서의 내용에 크게 좌우되며 교사의 수업방법이나 기술, 인간적 특성보다도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7, 역사비평사, 1991, 64쪽.
- 3)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하여 서술된 한국사교과서의 문제를 제기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진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종익,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연주, 「국정 중등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

사교과서에서 표면적으로는 단일민족 의식에서 상당히 탈피했지만, 각론 곳곳에는 옛 교육과정 시기에 서술되었던 내용들이 남아있는 현실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교과서의 내용 집필은 고대의 역사적 상황을 현대의 현실과 관점에 맞추어 해석·이용한 것이었다. 즉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하여 집필된 한국 고대사의 내용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국가 발전을 위한 몸을 헌신·희생할 것은 물론이요,⁵⁾ 나아가 당시 한국을 위협한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의 우위와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⁶⁾

이러한 한국사교과서에서의 고대사 부분 내용은 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은 고대로부터 단일혈통으로 이어져왔고, 고대 삼국도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⁷⁾ 또한 이로 인해 형성된 이른바 단일민족신화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유발시킨 면도 없지 않았다.⁸⁾ 뿐만 아니라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 확립으로 사회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배진우, 「중학교 국사교과서 고대사 영역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서술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부오, 「2011년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나타난 고대사 서술의 변화」, 『신라사학보』 24, 신라사학회, 2012; 한용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대외항쟁사' 서술비판 : 자국사중심 서술의 비판과 대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나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민족 관련 서술의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 계층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족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민족에 대한 원초적인 충성심은 종종 민족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민족 집단의 이익이라는 담론 아래에는 소수지배계층의 정치적·경제적 야욕과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된다. 민족을 위한 삶이 아름답고 존경받아야 하는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의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민족에의 신념과 의리를 저버린 자로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조연주, 「국정 중등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8쪽.
- 6) 최승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8~39쪽.
- 7) 제한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2009년 3월에 김상훈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1.7%의 학생들이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70.9%의 학생들이 고구려·백제·신라가 같은 민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중·고등학생들의 의식과 『국사』교과서의 관계」, 『한국고대사탐구』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10~15쪽.
- 8) 각국 사회과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세계가치관조사협회가 2010~2014년 조사한 결과를

통합 및 발전, 남북한의 민족 통일 명분 확보라는 순기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개개인의 생존과 인권이 국가 번영을 위한 헌신·희생이란 이름으로 무시당한 역기능도 선보였다.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단일민족 의식에서 탈피하였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 서술을 분석하면서 왜 그렇게 집필해야 했는지를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역사 서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족’ 개념과 ‘민족’ 형성에 대한 이론 정리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한국사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nation’¹⁰⁾ 혹은 ‘Volk’를 번역한 것으로 ‘민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민족’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다. 크게 객관주의적 민족론(원초론적 입장, Primordialism)과 주관주의적 민족론(도구론적 입장, Instrumentalism)으로 나뉜다.

객관주의적 민족론은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노이만(Franz J. Neumann) 등 독일 학자들이 공통의 언어·문화·종교·관습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원초적인 민족적 유대감이 국가나 정치 형태에 관계없이 선행되어 온 ‘문화민족(Kulturnation)’이라 주장한 이론이고, 주관주의적 민족론은 헤이즈

보면 한국은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이 전체 59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일민족’이나 ‘백의민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외국인들과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동철, 「외국인 주민 200만명 육박… 단일문화 집착 버려야」, 『국민일보』 2015년 8월 24일자.

- 9) 한국 사회의 국가주의는 식민지 유산으로서 일본의 천황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는 초국가주의적 사고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이승만 정부의 ‘일민주의’와 효과적 지배 이념으로서의 ‘반공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이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선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강력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선호, 대중에 대한 멸시와 지도자에 대한 의지 등을 당연시하는 지적 풍토를 만들었다.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19,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351쪽.

(Carton Hayes), 케두리(Elie Kedourie) 등 영미권 학자들이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부르주아가 내세운 인민주권론이 세속주의, 국민적 시장권과 결합되면서 봉건 사회의 왕조적 충성심에서 탈피하여 민족공동체에 스스로 귀속하고자 하는 민족 성원들의 주관적인 의지가 근대적 민족주의와 민족을 탄생시킨 ‘국가민족 (Staatsnation)’이라고 주장한 이론이다.¹⁰⁾

앞서의 ‘민족’ 형성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인 민족적 형성 요소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과 봉건 사회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귀속의지’를 가지면서 민족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세기 말에는 민족의 형성 시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이것이 근대주의적 입장과 역사주의적 입장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탈근대론(Post-Modernism)에 입각한 탈민족주의적 입장도 등장했다.

근대주의적 입장의 대표 학자들로 어네스트 겔러(Ernest Gellner),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 등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겔러는 국가와 민족주의의 기본 특징인 동일한 언어와 문화, 자치적 국가, 광범위한 영토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고, 홉스봄은 옛날부터 전해져 온 전통이 대부분 근대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산·창조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전통의 창조’라는 주장을 제시했다.¹¹⁾

역사주의적 입장의 학자로는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가 대표적인데, 그는 근대적 국가의 역사적인 토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원형 집단이 존재하였다가 그것이 근대에 들어서 문화적·정치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부활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을 원초론적 민족론과 근대주의적 입장 모두와 차별을 두었는데, 원초론적 민족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고정된 종족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서 살고 있고, 종족적 결속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게 아닌 여러 다양한 결속 가운데 하나일 뿐, 다른 사회적 결속과 마찬가지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힘에 예속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비

10)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33~34쪽.

11)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34~35쪽.

판했다.¹²⁾ 또 근대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념과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가 18세기 말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족적 결속을 넘어서 민족적 감정의 성장이 서유럽 국가들에서 15~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근대주의적 입장이 지방적·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하며 많은 근대 민족의 기초를 계속 형성하고,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전의 전 근대적 전통 및 유산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그리고 민족은 영속적인 것이라는 ‘영속주의적 입장’에도 비판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근대와 근대적 문화공동체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했다.

- ① 고대·중세에는 ‘민족’이 상층 계급에 불과하지만, 근대에는 모든 개별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대중적 민족’이다.
- ② 과거의 역사적·문화적 공동체와 달리 근대 민족은 민족들의 연합체이거나 단일한 주권인 민족국가로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자율성을 가지는 ‘정치적 공동체’이다.
- ③ 근대 민족들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정당화된다.
- ④ 근대 민족은 전 세계가 개별의 민족국가로 나뉘는 보다 넓은 국제 체제의 일부이다.
- ⑤ 근대 민족은 지리, 영토와 결합된 인간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스미스는 민족에 대한 결론을 “공통의 신화와 기억, 대중적 공공 문화, 특정한 지역, 경제적 단일성, 모든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간 집단”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⁴⁾

한편 탈근대론에 입각한 탈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 계급, 그리고 ‘민족’과 같은 것을 하나의 거대담론으로만 파악할 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민

12)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 강철구 역,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명경, 1996, 60쪽.

13)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 강철구 역,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명경, 1996, 73~76쪽.

14)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 강철구 역,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명경, 1996, 95~96쪽.

족' 등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이념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복수의 주체로 인식한다. 그래서 '민족' 개념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실체가 아닌 허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체하자고 주장한다. 즉 진보·이성·계급·민족 등과 같은 근대 역사학의 주류 지배담론 체제를 해체하고, 유럽중심·백인중심·남성중심·이성중심의 주류 담론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이상과 같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 형성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특성들을 일괄적으로 포괄하는 '민족' 개념을 귀납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¹⁶⁾ 때문에 '민족' 개념은 해당 민족의 시대적·지역적 특성에 맞추어서 봐야 하는데,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인 혈통·언어·강역 등과 주관적 요소인 '귀속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¹⁷⁾

혈통은 민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 요소로 간주되기는 하나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인종(race)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혈연의식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⁸⁾

언어도 민족을 규정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물론 독자적인 언어를 갖지 않은 민족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¹⁹⁾ 언어는 집단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구성원들이 연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²⁰⁾

강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그 민족을 타 민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²¹⁾ 이미 형성된 민족의 경우 지역적 공통성은 필수적 특성은 아니지만 민족 형성의 과정에서 공통의 강역은 모든 민족에게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타국으로 이주해 간 경우 원주지에 동족이 살고 있고, 계속 그 지

15) 양정현,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의 '민족' 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83, 역사교육연구회, 2002, 38~39쪽.

16)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17쪽.

17) 김미월,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 인식과 서술 - 고대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5쪽.

18)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18쪽.

19) 한스 콘(hans kohn), 백낙청 역,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93, 32쪽.

20) 칼톤 헤이즈(Carlton Hayes), 차기벽 역, 한길사,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1981, 15~16쪽.

21) 칼톤 헤이즈(Carlton Hayes), 차기벽 역, 한길사,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1981, 16쪽.

역을 고토로 인식함은 그들의 민족적 자의식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볼 때 민족 형성의 측면에서 공통의 강역은 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²²⁾

이들 객관적 요소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같은 동족이라는 ‘귀속의지’가 민족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²³⁾ 소위 ‘한 민족으로서의 자의식’은 공통의 언어·문화·지역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인 동시에 이들 요소를 상호 결합하여 민족의 형성과 지속을 가능케한다. 이러한 ‘자의식’으로써의 ‘귀속의지’는 일단 형성되면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오래 지속된다.²⁴⁾

물론 주관주의적 민족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평등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성원은 공동 운명체로서의 ‘귀속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민족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물역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²⁵⁾ 하지만 비록 전근대 시기의 동족의식은 차별성이 전제되어 있었지만 외부 종족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려인·조선인이라는 구별된 ‘귀속의지’는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사실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도 서구의 ‘민족’과 같은 개념을 담은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족류(族類)’라는 단어였다. 중국에서는 『춘추(春秋)』, 『후한서(後漢書)』에서부터 ‘족류’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한국에서도 고려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했다. 다만 주로 같은 친족과 무리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동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조선 때부터는 중국 종족, 야인(여진족), 왜인(일본족) 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조선 사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동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²⁷⁾

22)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17쪽~18쪽.

23) 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 이재석 역,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1988, 16쪽.

24)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19쪽.

25) 김미월,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 인식과 서술 - 고대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쪽.

26) 역사문제연구소(노태돈), 「대토론 : 한국민족은 언제 형성되었나」,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75쪽.

27)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50~53쪽.

그러다가 19세기 말 근대에 들어 ‘nation’을 일본에서 ‘족민(族民)’·‘민족(民族)’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한국과 중국에도 유입되어 보편화되었다. 구한말인 1900년경부터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초기에는 ‘인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04년경부터 대체로 오늘날의 ‘민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910년 이전에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다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민족’ 용어가 많은 지식인들에게 널리 확산·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은 한 핏줄을 나누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발전하였다.²⁸⁾

이처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찍이 각각 분명히 구별되는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오면서 서로 다르다는 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근대에 별개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주민들이 전근대 시대에는 혼종이 되었고, 분권적인 봉건제로 인해 지역적 경계도 뚜렷하지 않던 유럽의 민족형성과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²⁹⁾

한국의 경우 최소한 고려 성립 이후 민족의 이동에 따른 혼종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오랜 세월 동안 중앙집권적인 영역 국가를 유지했기에 주민의 통합도가 매우 높았다. 현재 한민족의 모체가 되는 주민과 현재의 국토가 완성되어진 것이다. 다만 어느 시기를 ‘민족’의 형성기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신용하는 근대 민족 이전에 선민족과 전근대 민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조선·부여·예맥·옥저·마한·진한·변한 등이 ‘전기 선민족’이고, 이들이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의 ‘후기 선민족’으로 통합되었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로 ‘전근대 민족’을 형성하였고, 19세기 후반에 ‘근대 민족’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즉 한민족의 형성을 삼국통일로 잡고 있다.³⁰⁾

28) 이는 후에 제시될 일민주의 등 이른바 ‘단일민족론’으로 발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분단의 위기에서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민족’이라는 개념과 ‘단일민족’의식이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박찬승, 『민족 · 민족주의』, 소화, 2011, 243~246쪽.

29) 권태익·정용욱 외,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214쪽.

30)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민족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50~53쪽.

노태돈은 고대에 유사한 문화를 지닌 종족(tribes) 집단들이 형성된 뒤 시간이 흐르고 집단들 간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동질화가 진전되다 삼국통일로 전체를 아우른 차원의 동족의식을 지닌 한민족이 형성되었고, 고려의 발해인 수용과 후 삼국 통일로 현재 한민족의 틀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³¹⁾

한편 채웅석, 오수창 등은 전근대의 경우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족체(nationality)’로 표현할 것을 주장했는데,³²⁾ 채웅석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민족체’ 강화의 큰 전기로 보았지만, 고려 후기의 삼국부흥운동이 일어난 예를 들며 여전히 ‘민족체’의 응집력에는 한계를 보이다 대몽항쟁을 거치며 ‘민족체’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었다고 파악했다.³³⁾ 오수창은 조선 시대에도 지역 차별이 존재한 예를 들며 내적 통합이 완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세종 대에 4군 6진 개척으로 국가의 경계가 획정된 후 단일 종족·언어·문화로써의 ‘민족체’가 확정되었다고 보았다.³⁴⁾ 이러한 주장들은 역사주의적 입장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임지현은 “신분제에 기초한 왕조 국가의 공동체는 지배 신분의 공동체일 뿐”으로 전근대의 한국사에서 민족공동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의 경우에도 ‘민족’은 근대 이후에나 형성될 수 있었던 근대주의적 입장을 채택한 것이었다.³⁵⁾

그렇지만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신분제가 존재한 전근대 시대라도 소속된 집단에 대한 ‘귀속의지’ 즉 동족의식은 최소한 존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대 삼국은 각기 다른 정치체로 인식하다가 최소 고려 통합 이후부터 ‘족류’와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고, 근대로 갈수록 신분이 수평적인 평등한 동질성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민족의 틀 내지 ‘민족 모체’가 근대의 민족주의를 만나면서 ‘근대 민족’으로 전환되었다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종족민족주의와 같이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기원했다는 민족기원론적 입장과 오랜 역사를 흘러오면서 점차적으로 단일민족으로 통합되어 왔다는 민족

31)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 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24쪽.

32) 채웅석, 「고려시대 민족체 인식이 있었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오수창, 「조선시대 국가, 민족체의 허와 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33) 채웅석, 「고려시대 민족체 인식이 있었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131쪽.

34) 오수창, 「조선시대 국가, 민족체의 허와 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136~139쪽.

35) 임지현,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3일자.

형성론적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민족형성론 안에서도 고대 삼국부터인가, 신라의 삼국통일부터인가, 고려의 통일부터인가로 시기를 다르게 보는 등 ‘민족’ 개념과 ‘민족’ 형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민족’의 형성시기를 고려의 통일부터로 파악한다. 물론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민족’의 형성시기로 파악하는 견해가 많지만 삼국통일을 이룬지 얼마 뒤 발해가 건국, 남북국으로 정립되면서 완전한 ‘민족’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삼국유민의식, 조선 시대에는 지역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완전히 통합된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려의 통일로 하나의 단일국가·왕조가 형성되며 단일 종족·언어·문화를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백제·고구려의 부흥을 기치로 분열되었던 후삼국은 물론 발해까지 완전히 통합한 고려 이후부터 ‘민족’이 성립된다고 본다.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는 언어·혈통 등의 객관주의적 요소로만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한 ‘귀속의지’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도 중시하며 한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역대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반영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고대사 부분 서술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연구 방식

본 논문에서는 교수요목기를 제외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 서술들을 중심으로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내용들이 객관주의적 요소만을 강조하여 보았을 뿐, ‘귀속의지’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간과하며 실제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사회적 맥락으로 해석해 온 문제점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의 서술이 ‘왜, 어떻게’ 집필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은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고찰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기의 변

화에 따라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외형적인 내용의 변화만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당시의 한국사교과서의 내용이 서술된 사회적 맥락·배경 등을 고찰해 보면서 해당 부문의 서술내용 변화 요인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다.³⁶⁾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사교과서 서술의 개선 및 변화의 실마리를 얻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소견이다.

먼저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한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문 서술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부문의 변천을 수직적으로 분석·정리하되, 각 시기별로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서술 내용의 변화 요인을 탐구해 볼 것이다.

분석한 한국사교과서는 1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국사』 교과서 17종(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 2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국사』 교과서 21종(중학교 12종, 고등학교 9종), 3차~7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국사』 교과서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14종(중학교 8종, 고등학교 6종),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17종(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이다. 그러나 1~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들 중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도 있기에 아래의 <표>에서 따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한국사교과서의 명칭은 이른바 『국사』로 칭해졌기에 해당 시기까지는 국사 과목, 국사교과서로 표기하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사』가 『한국사』로 변화한 배경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에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문 서술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제안하고, 앞 장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36) 김한중, 「국사교과서 연구의 동향 2」,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551~552쪽.

<표> 분석에 이용된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목록

| 교육과정 | | 저자 | 교과서명 | 출판사 | 발행 년도 | 비고 및 약호 |
|------------|------------------|---------|----------------|-------|----------|---------------------------|
| 1차 (검정) | 중 학 교 | 김상기 | 우리나라 역사 | 장왕사 | 1956 | 1-①-1 ³⁷⁾ |
| | | 김용덕 | 새로운 우리나라 역사 | 일한도서 | 1957 | 미확인 ³⁸⁾ |
| | | 신석호 | 국사 | 동국문화사 | 1956 | 미확인 |
| | | 역사교육연구회 | 중등 국사 | 정음사 | 1957 | 1-①-2 |
| | | 유홍렬 | 우리나라 역사 | 탐구당 | 1956 | 1-①-3 |
| | | 이병도 | 중등 국사 | 을유문화사 | 1956 | 1-①-4 |
| | | 이흥직 | 우리나라 역사 | 민교사 | 1956 | 1-①-5 |
| | | 조계찬 | 우리나라 역사 | 백영사 | 1956 | 1-①-6 |
| | | 조좌호 | 우리나라 문화사 | 영지문화사 | 1957 | 1-①-7 |
| | | 최남선 | 국사 | 민중서관 | 1957 | 1-①-8 |
| | | 최영해 | 중등 국사 | 정음사 | 1962 | 미확인 |
| | | 한우근 | 우리나라 역사 | 상문원 | 1956 | 1-①-9 |
| | 고 등 학 교 | 김상기 | 고등 국사 | 장왕사 | 1957 | 1-②-1 |
| | | 역사교육연구회 | 고등 국사 | 교우사 | 1959 | 1-②-2 |
| | | 유홍렬 | 한국 문화사 | 양문사 | 1956 | 1-②-3 |
| | | 유홍렬 | 한국사 | 탐구당 | 1956 | 1-②-4 |
| | | 이병도 | 국사 | 일조각 | 1956 | 1-②-5 |
| | | 이흥직 | 우리나라 문화사 | 민교사 | 1957 | 1-②-6 |
| | | 최남선 | 고등국사 | 사조사 | 1957 | 1-②-7 |
| | | 홍이섭 | 우리나라 문화사 | 정음사 | 1957 | 1-②-8 |
| 2차 (검정) | 중 학 교 | 강대현 외 | 새로운 사회 | 홍지사 | 1966 | 2-①-1 |
| | | 강석오 외 | 중학교 새사회 | 탐구당 | 1967 | 2-①-2 |
| | | 강우철 외 | 중학교 새사회 | 탐구당 | 1970 | 2-①-3 |
| | | 김상기 외 | 중학 사회 | 장왕사 | 1966 | 2-①-4 |
| | | 박노식 외 | 새로운 중학사회 | 정음사 | 1966 | 2-①-5 |
| | | 변태섭 외 | 중학교 사회 | 법문사 | 1966 | 2-①-6 |
| | | 역사교육연구회 | 중학 사회 | 정음사 | 1970 | 2-①-7 |
| | | 유진오 외 | 사회 | 일조각 | 1967 | 2-①-8 |
| | | 이지호 외 | 중학교 사회 | 교육출판사 | 1965 | 미확인 |
| | | 이흥직 | 중학 사회 | 동서출판사 | 1965 | 미확인 |
| | | 이흥직 외 | 중학 사회 | 동아출판사 | 1966 | 2-①-9 |
| | | 전해종 외 | 중학 새사회 | 민중서관 | 1970 | 2-①-10 |
| | | 조좌호 외 | 중학 사회 | 영지문화사 | 1970 | 2-①-11 |
| | | 최복현 외 | 중학새사회 | 민중서관 | 1965 | 미확인 |
| | | 황철수 외 | 새로운 사회 | 사조사 | 1967 | 2-①-12 |

| | | | | | | |
|------------|------------------|--------------------------------------|--------|---------------|------|-------|
| 2차 (검정) | 고 등 학 교 | 김상기 | 국사 | 장왕사 | 1968 | 미확인 |
| | | 문교부 | 국사 | 대한교과서 | 1968 | 2-②-1 |
| | | 민영규 | 국사 | 양문사 | 1968 | 2-②-2 |
| | | 변태섭 | 국사 | 법문사 | 1968 | 미확인 |
| | | 신석호 | 국사 | 광명출판사 | 1968 | 2-②-3 |
| | | 윤세철 외 | 새로운 국사 | 정읍사 | 1968 | 2-②-4 |
| | | 이병도 | 국사 | 일조각 | 1968 | 미확인 |
| | | 이상옥 외 | 국사 | 문호사 | 1968 | 2-②-5 |
| | | 이원순 | 국사 | 교학사 | 1968 | 2-②-6 |
| | | 이현희 | 국사 | 실학사 | 1968 | 2-②-7 |
| 3차 (국정) | 중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임병태) | 국사 | 대한교과서 | 1974 | 미확인 |
| |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이만열) | 국사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1979 | 3-①-1 |
| | 고 등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김철준) | 국사 | 대한교과서 | 1975 | 미확인 |
| |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김철준) | 국사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1979 | 3-②-1 |
| 4차 (국정) | 중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신형식) | 국사(상)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1982 | 4-①-1 |
| | 고 등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하현강) | 국사(상)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1982 | 4-②-1 |
| 5차 (국정) | 중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 (김정배·신형식) | 국사(상)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0 | 5-①-1 |
| | 고 등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 (김두진·안승주· 최몽룡) | 국사(상)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0 | 5-②-1 |

| | | | | | | |
|--------------------|------------------|---|-------|---------------|------|-------|
| 6차 (국정) | 중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양기석·임병태) | 국사(상)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6 | 6-①-1 |
| | 고 등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김두진·최규성· 최몽룡) | 국사(상)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6 | 6-②-1 |
| 7차 (국정) | 중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 원회/교육과학 기술부 (양기석·최성락) | 국사 | 두산동아 | 2002 | 7-①-1 |
| | 고 등 학 교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 원회/교육과학 기술부 (이명희·최몽룡· 최상훈) | 국사 | 두산동아 | 2002 | 7-②-1 |
| 2007 개정 (검정) | 중 학 교 | 신영범 외 | 역사(상) | 교학사 | 2011 | 8-①-1 |
| | | 양호환 외 | 역사(상) | 교학사 | 2011 | 8-①-2 |
| | | 이문기 외 | 역사(상) | 두산동아 | 2011 | 8-①-3 |
| | | 정선영 외 | 역사(상) | 미래엔 | 2011 | 8-①-4 |
| | | 정재정 외 | 역사(상) | 지학사 | 2011 | 8-①-5 |
| | | 조승래 외 | 역사(상) | 대교 | 2011 | 8-①-6 |
| | | 조한욱 외 | 역사(상) | 비상교육 | 2011 | 8-①-7 |
| | | 주진오 외 | 역사(상) | 천재교육 | 2011 | 8-①-8 |
| | 고 등 학 교 | 이건홍 외 | 한국사 | 비상교육 | 2011 | 8-②-1 |
| | | 이인석 외 | 한국사 | 삼화출판사 | 2011 | 8-②-2 |
| | | 정재정 외 | 한국사 | 지학사 | 2011 | 8-②-3 |
| | | 주진오 외 | 한국사 | 천재교육 | 2011 | 8-②-4 |
| | | 최준채 외 | 한국사 | 법문사 | 2011 | 8-②-5 |
| | | 한철호 외 | 한국사 | 미래엔 | 2011 | 8-②-6 |

| | | | | | | |
|--------------------|------------------|-------|------|--------|------|-------|
| 2009 개정 (검정) | 중 학 교 | 강종훈 외 | 역사 1 | 금성출판사 | 2013 | 9-①-1 |
| | | 김태식 외 | 역사 1 | 지학사 | 2013 | 9-①-2 |
| | | 양호환 외 | 역사 1 | 교학사 | 2013 | 9-①-3 |
| | | 윤선태 외 | 역사 1 | 천재교과서 | 2013 | 9-①-4 |
| | | 이건홍 외 | 역사 1 | 비상교육 | 2013 | 9-①-5 |
| | | 이문기 외 | 역사 1 | 두산동아 | 2013 | 9-①-6 |
| | | 정선영 외 | 역사 1 | 미래엔 | 2013 | 9-①-7 |
| | | 주진오 외 | 역사 1 | 천재교육 | 2013 | 9-①-8 |
| | | 한철호 외 | 역사 1 | 좋은책신사고 | 2013 | 9-①-9 |
| | 고 등 학 교 | 구난희 외 | 한국사 | 천재교육 | 2014 | 9-②-1 |
| | | 권희영 외 | 한국사 | 교학사 | 2014 | 9-②-2 |
| | | 김태식 외 | 한국사 | 지학사 | 2014 | 9-②-3 |
| | | 여호규 외 | 한국사 | 금성출판사 | 2014 | 9-②-4 |
| | | 윤영호 외 | 한국사 | 리베르스쿨 | 2014 | 9-②-5 |
| | | 이건홍 외 | 한국사 | 비상교육 | 2014 | 9-②-6 |
| | | 이인석 외 | 한국사 | 두산동아 | 2014 | 9-②-7 |
| | | 한철호 외 | 한국사 | 미래엔 | 2014 | 9-②-8 |

※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참조

- 37) 본문에서 교과서 서술 내용을 제시할 때, 해당 교과서의 출처를 약호로 표기했다.
1-①-1을 예시로 들었을 때 1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 첫 번째로 ‘김상기, 『우리나라 역사』, 장왕사, 1956’이 해당 출처이다.
- 38) 교과서의 존재는 확인이 되지만, 확인하지 못한 좋은 **미확인**으로 표기했다.

2.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5~1963)

(1) 일민주의를 바탕으로 단일민족 의식 강조, 복진통일의 당위성 확보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지 3년 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법 제정, 제도 구축, 행정 등 정치 행위가 다시 한국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의 상흔을 극복하고, 북한을 무력통합하려는 복진통일에 적극 동참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에 의해 위축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사 교육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된 지 1년 뒤인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이 공포되는 등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교육과정 제정 논의가 중단되면서 큰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한국전쟁은 교육과정 제정에 이념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정 시기부터 고조되던 반공 이념이 교육 이념으로까지 정립되는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 이념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이 때 제1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친 이념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승만 정부 하에서 통치 이념으로도 숭상된 이른바 ‘일민주의(一民主義)’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한민족의 순수성·단일성·불멸성을 내세운 종족민족주의가 발전한 것이었는데,⁴⁰⁾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라는 논리였다.⁴¹⁾

일민주의 논리는 초대 국무총리인 이범석과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이 적극 지지하면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고, 이러한 시각은 1차 교육과정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서술에도 여파를 미치게 되었다.

39)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169쪽.

40)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159쪽.

41) 일민주의에 따르면, 한민족은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단일민족으로 민족적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이다. 일민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하나여야 하며, 죽든지 살든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19쪽.

당시 한국전쟁에 대한 대비 미숙,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무능, 발췌개헌 등으로 이승만 정부의 권위와 지지도는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일본의 식민주의 잔재가 크게 남아있었고, 미국 등 서양 문화에 대한 지나친 숭배로 한국인들의 주체성과 자신감이 더욱 하락되는 처지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민주의에서 주장된 단일민족 의식은 한국인들의 동질감과 단결심을 자극하여 작게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에 한국인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공주의는 물론 나아가 북진통일에 대한 정당성도 획득하여 체제 유지의 이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52년, 문교부는 부산에서 다시 교육과정 제정을 재개하여 각 급 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작성하였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되면서 1955년 8월, 마침내 ‘제1차 교육과정(1955~1963)’이 시행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 과정에서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민족정체성을 확립, 국가와의 일체감과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시키고자 했다.⁴²⁾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민족애를 철저히 고취시켜 사회 진출 후 당대 시대적 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했다.⁴³⁾

(2) 민족기원론과 민족형성론 입장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 하에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들에서는 ‘귀속의지’와는 관계없이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내용이 한국 고대사 부분에 다수 서술되었

42) 1) 민족의 형성과 국가 생활의 발전을 이해시키므로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의 과업을 인식시키고 민주국가 육성에 이바지하게 한다. [문교부령 제45호(1955.8.1.) - 중학교 사회 생활과 교육과정]

43) 2. 국사의 전 발전 과정을 통하여 발양된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발굴하여 민족애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또한 그 결점과 후진성을 판별하여 민족적 과업의 달성에 반성을 주게 하여 항시 현재의 위치와 실천의 계기에서 국사를 이해하게 한다. [문교부령 제46호(1955.8.1.)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다. 이는 안호상의 일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단일 혈통을 가진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구심점을 단군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정했다.⁴⁴⁾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국사교과서들이 많았지만, 역사의 시작부터 한 핏줄로 이어져 왔다는 전제하에 교과서 내용을 서술했다. 특히 가-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을 가리킨 ‘겨레’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핏줄임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그 외 국사교과서들에서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당위성을 서술하면서 고대 삼국은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이었음을 간주하고 있다.

가-1-1 … 이후 조선을 가운데에 두고, 우리 겨레의 여러 나라가 서 있었다. 동쪽에는 임둔(臨屯), 남쪽에는 진번(眞番)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만주, 동남부에 부여(夫餘)가 있고, 한강 이남에는 진국(辰國) 등이 서 있었다. (1-①-1, 一. 부족 국가 생활 / (3) 고조선(古朝鮮), 8쪽) … 이와 같이 하여 이룩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 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한 줄거리의 겨레로서 지금까지 갈려 있던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통일된 단일(單一)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①-1, 二. 세 나라로 뭉친 사회 / (4) 신라의 통일과 삼국의 문화, 31쪽)

가-1-2 … 한 핏줄기에서 나온 단일민족(單一民族)이라는 자랑을 가진 우리 조상들은, 민족의 시조(始祖)로서 단군(檀君)을 받들고 다 같이 단군의 아들 딸이며,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단결하려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1-①-2, I. 민족의 새벽과 부족 국가의 자라남 / (1) 우리 민족의 이루어짐, 9~10쪽) … 삼국은 모두 같은 민족이니만큼 언어, 풍속, 생활의 모양이 비슷하였으나 그 환경의 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겼던 모양이다. (1-①-2, II. 삼국에서 통일 국가로 / (4) 삼국의 사회와 문화, 34쪽) … 이리하여 민족 통일이라는 온 겨레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흩어져 살던 우리 민족은 비로소 한 땅 위에서 한 나라로 뭉치어 살게 되었으니, 이 때부터 우리 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씩씩한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①-2, III. 민족 국가의 발전 / (1)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 41쪽)

44)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23쪽.

가-1-3 ... 이 한씨 조선의 남쪽에는 진번(眞番), 동쪽에는 임둔(臨屯), 동북쪽에는 예맥(濊貊)이란 부족 국가가 있었으나, 거기서 가장 세력을 잡은 나라가 조선이었다. 또 조선 북쪽에는 부여(夫餘)란 나라가 있고, 한강 이남에는 여러 부족 국가가 있어, 이를 진(辰)이라고 총칭하였는데, 이들도 대개 언어 풍속을 같이 한 우리 겨레임은 물론이다. (1-①-4, Ⅱ. 부족 국가의 생활 / 1. 고조선의 발달과 사회 생활, 16~17쪽) ...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삼국이 다 같은 우리 겨레로서 언어 · 문화 기타가 대체로 같았으나, 그 일어난 곳과 정치를 달리하였으므로 사람의 성질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각기 특색을 나타냈었다. (1-①-4, Ⅲ. 삼국의 일어남과 다툼 / 2. 삼국의 사회 생활과 문화, 38쪽)

가-1-4 ... 이 부여 인은 차차 여러 갈래로 변창하며 살기 좋은 강줄기의 벌판을 찾아서 남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은 지금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유역에 새 부족(部族)들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부족은 다를지언정 그 큰 줄기는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1-①-5, 제1편 부족 국가의 생활 / 제3장 단군 조선의 민족 신화, 10쪽) ... 삼국은 물론 한 갈래의 계통을 이어내려온 나라임에는 틀림 없었으나 그 세 나라가 각기 독립되어 있는 동안은 민족의 통일 완성은 기할 수 없었다. (1-①-5, 제3편 신라 통일 사회 / 제1장 통일 신라의 사회와 발해, 45쪽)

가-1-5 ... 예맥족과 한족은 그들이 이동하여 온 경로와 불박혀 산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 풍속 습관과 생활 양식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 두 종족은 본래 한 줄기의 혈통(血統)을 이어 같은 언어(言語)를 쓴 단일 족속(單一族屬)의 분파(分派)에 지나지 않았다. (1-①-6, 제1장 부족 국가 생활 / 제1절 우리 겨레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실로 중대한 전환을 가져 왔다. 우리 민족은 세 나라로 분열되어 서로 대립하여 싸워 오던 것이, 이 때로부터 한 나라로 뭉치어 한 정부 한 법령 한 제도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단일 국민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신라의 통일을 기회로 하여 핏줄기를 같이 하고 또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다. 여태까지 우리 민족은 비록 같은 핏줄기를 이어 받기는 하였으나 제각각 운명을 달리하고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여러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1-①-6, 제3장 신라 통일 사회 / 제1절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어떻게 민족을 다스렸는가?, 63쪽)

가-1-6 ... 북방 고구려족이나 남방 한족(韓族)이나 원래 한 핏줄기에서 흘러 내려온 민족이
었으나, 그 동안 갈라져서 서로 대립되어 있었던 만큼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점
이 많았다. (1-①-7, 제3단원 통일 신라 시대 / 제 11. 신라의 통일 정치, 60쪽)

가-1-7 ...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여러 종족(種族)으로 갈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도 나누어졌던 것이나, ... (1-②-2, 제3편 통일 신라 시대, 54쪽)

가-1-8 ... 신라는 당과 손을 잡으므로써 백제(660)와 고구려(668)를 없애었으나, 이때 당
은 신라조차 합치려고(663) 하였으므로 우리 삼국의 거래는 민족적으로 한데 뭉
치어서 ... (1-②-3, 제4장 통일 신라의 문화 / 1. 민족 통합과 문화의 특색, 59쪽)

가-1-9 ... 당시의 모든 부족 국가들은 다 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이를 구분하면, 지역별
로 북방 사회와 남방 사회의 둘로 나눌 수 있다. (1-②-5, Ⅲ 부족 국가의 대두
와 그 문화 / 3. 성장하는 남 · 북방 사회, 23쪽) ...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이후
반도의 민중은 비로소 한 정부, 한 법률, 한 지역 안에 뭉치어 민족의 통일을 보았
다. (1-②-5, V 통일 신라의 발전과 그 문화 / 1. 통일 신라의 정치와 경제, 53쪽)

반면에 역사의 시작부터 단일민족으로 시작되어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서로 달
랐던 종족들이 오랜 역사를 흘러오면서 점차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형성되어 왔
다는 민족형성론에 입각해서 서술한 국사교과서들도 상당수였다. 대체로 이러한
서술들도 민족 통합의 시기를 삼국통일로 간주하였고, 삼국통일 이후부터 단일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2-1 ... 이들 여러 부족 국가는 중국 민족과 싸우게 됨에 이르러 보다 크게 뭉치어서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삼 대왕국을 이룩하게 되고, 이것들은 단
시 하나로 뭉치어서 신라 통일의 민족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1-①-3, 머릿말
우리 민족의 기원과 국토의 특성 / 1. 민족의 기원, 1쪽)

가-2-2 ...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처음부터 통일된 한 덩어리의 큰 집단
이 아니고 오랫동안 남북 각지에 수많은 조그만한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음은

위에 배운 바와 같다. (1-①-4, Ⅲ. 삼국의 일어남과 다툼, 27쪽) … 우리가 약소 국가로 찌부러지기는 이 때부터라 하겠으나, 조그마한 신라로서는 큰 일을 하였던 것이다. 어떻든 반도의 민중이 한 정부 · 한 제도 · 한 법령 아래에 뭉쳐 단일 국민을 이루기는 이 때서부터이니, 우리 역사에 있어 크게 주의할 사실이라 하겠다. (1-①-4, IV. 통일 신라의 사회 / 1.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 51~52쪽)

가-2-3 … 이제 비록 고구려가 차지하던 많은 영토와 백성은 아우르지 못했을지라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와 백성을 하나의 국가 속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오늘날의 우리 민족의 토대가 된 것이었다. (1-①-5, 제3편 신라 통일 사회 / 제1장 통일 신라의 사회와 발해, 45쪽)

가-2-4 … 남북에 일어난 여러 부족국가들은 중국 군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한편 서로 싸웠다. 이 결과 차츰 약한 나라는 큰 나라에 합병되어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나타났다. 이 3국의 출현은 신라의 민족 통일에 의한 전제가 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소 통일이라 하겠다. (1-①-7, 제2단원 3국 시대 / 제 5. 삼국의 형성, 30쪽) … 이 신라의 통일은 완전한 3국 통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의 정부 아래 뭉쳐서 단일민족으로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룩하게 되었다. (1-①-7, 제2단원 3국 시대 / 제 10. 3국의 통일, 59쪽)

가-2-5 … 대륙과 반도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대항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부족국가가 커다랗게 단결되는 동기를 만들었다. (1-①-8, 단원 二 세 나라로 뭉친 사회 / I 삼국의 형성, 17쪽) … 이리하여 오랫동안 대립하였던 삼국의 싸움은 끝나고 우리 민족은 만주의 요동 지방을 잃기는 하였으나 비로소 한나라 밑에 통일되었다. (1-①-8, 단원 三 신라 통일사회 / II 통일신라의 발전과 발해건국, 41쪽)

가-2-6 … 일찌기 발달되었던 고조선 지방이 한족(漢族)에 의하여 지배되는 동안, 그 주변에서는 여러 부족 사회가 일어났다. 이들 여러 부족 사회는 언어가 서로 공통되고, 습속이 대체로 같으므로, 이미 하나의 민족을 이룩할 바탕 위에 있었다. (1-①-9, 제2편 고조선(古朝鮮) 지방과 여러 부족사회(部族社會) / 5. 남북의 여러 부족 사회, 14쪽) … 신라는 대동강에서 지금의 원산만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영역 상(領域上)으로나 정치상으로 완전히 민족의 자주 통일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1-①-9, 제4편 고대 통일 국가로서의 신라(新羅) 사회 / 10. 신라의 반도 통일과 발해, 40쪽)

가-2-7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 사상(史上)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같은 겨레가 동방에 분포된 이후로 각기 지리적 또는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여러 작은 부족 국가로 나뉘어 패(霸)를 다투다가 그것이 삼국으로 소통일(小統一)을 이룩하고 쟁패(爭霸)가 오래 계속된 나머지에 마침내 신라가 중심이 되어 대통일을 이룩하였다. 신라의 통일은 지역적으로 보면 백제와 고구려의 남부 일대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민족 통일의 모체(母體)가 이에서 이루어져 지금까지 여러 나라로 갈려 있던 우리 겨레가 신라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통일된 단일(單一) 민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②-1, 제4장 통일 신라 및 발해와 그 문화 / 1. 통일 신라의 국가적 발전과 문화, 69쪽)

가-2-8 개관 … 이제는 하나의 정부(政府) 밑에 온 민족이 통합되었으니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이 정치적 통일, 민족적 통일을 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제3편 통일 신라 시대, 54쪽) … 이제는 한 민족으로 뭉치고 한 정부의 정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3국시대는 결국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過程)이요, 진통기(陣痛期)였던 것이다. (1-②-2, 제3편 통일 신라 시대 / I. 정치 사회의 변화, 58쪽)

가-2-9 … 우리 민족의 큰 줄거리는 몽고인종에 속하고 있으나 대한 반도의 남쪽 지방에는 일찌기 남양 계통의 해안 도서(海岸島嶼) 민족(Travidians)이 들어온 일이 있었고, 때에 따라 중국인 만주인 몽고인 일본인들도 들어와 피를 섞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다른 계통의 사람들은 수가 적어서 몽고 계통인 우리 민족에게 동화(同化)되게 되었다. 우리 겨레가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룩하게 된 것은 신라 통일 시대부터의 일이나, … (1-②-4, 머리말 민족과 문화 / 1. 우리 민족의 기원, 1~2쪽) … 우리 겨레의 조상들은 만주와 대한 반도로 모여들어서 이곳 저곳에 수많은 부족(部族) 국가를 세우고 자주적인 문화를 이룩하였으나, 이것은 그 후 중국 민족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 큰 귀족 국가로 뭉치어서 찬란하고 씩씩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1-②-4, 제1편

고대사 / 개요 <태고적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7쪽)

가-2-10 민족과 사회 인류의 역사가 세계사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민족의 사회 발전 과정은 비록 시간의 지속(遲速)은 있을망정 대략 같은 길을 밟아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도 씨족 사회에서부터 부족 국가와 그 연맹체를 거쳐서 민족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②-6, 머리말 민족과 문화, 2쪽) … 민족의 유래 … 그런데 북방에서 남하하여 온 주되는 요소 이외에도 내륙으로부터 여러 족속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독특한 문화 민족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1-②-6, 머리말 민족과 문화, 3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즉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1-②-6, 제3편 신라 통일 시대 / 제1장 고대 통일 국가의 발전, 59쪽)

가-2-11 [남북 여러 부족국가의 형성과 분포] 일찍부터 만주 및 반도 안에서 부족생활을 이루고 있던 우리조상들은, 다툼 민족과의 충돌과 금속문화의 수입(輸入)으로 인하여 점차 통합되고, 보다 큰 부족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 이들 여러 부족국가는 모두 같은 계통의 민족으로 그 언어(言語), 풍속(風俗), 신앙(信仰) 등이 비슷하였으나, 각각 그 지방의 환경과 또한 타민족과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치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1-②-7, 제 I 편 부족국가 사회 / 제3장 남북 여러 부족국가의 사회생활, 20~21쪽) … 우리 민족은 신라통일에 의하여 지금까지 여러 나라로 분할된 것이 비로서 한 정부(政府)밑에 한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는 민족국가(民族國家)로 출발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국민임을 의식(意識)하고 자각(自覺)하여 단결한 것은 이때 부터 명확하게 된 것이다. (1-②-7, 제Ⅲ편 신라 통일사회 / 제1장 통일 신라의 정치, 58쪽)

가-2-12 만주에서 반도에 걸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씨족의 테두리에서 차츰 좀 더 큰 덩어리로 뭉치어 지게 되었다. 여러 씨족은 안으로 공동의 생활을 하며, 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부계제 사회를 이루며, 밖으로 힘을 뻗쳐 나아가려 함에서, 힘 센 씨족은 다른 씨족을 합치어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1-②-8, 제Ⅱ장 부족 사회의 문화 / 2. 부족국가의 형성과 분포, 14쪽) … 사회 발전에 따라, 민족신(民族神)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민

족과 국가를 통일함에서 단일(單一)한 신앙의 대상으로 민족신을 두게 된 것이
 요, … (1-②-8, 제Ⅲ장 삼국 시대 문화 / 4. 삼국의 신앙과 화랑도 , 39쪽)
 … 여기서 비로소 신라는 삼국의 통일에서 세 나라 영토 안에 있는 같은 민족
 을 규합하여 민족적인 단일(單一)국가를 형성하며, 당나라의 세력을 조선 민족
 의 강토 안에서 내몰기에 성공하였다. (1-②-8, 제Ⅳ장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 / 1. 신라의 통일과 민족의 형성, 55쪽)

이러한 국사교과서의 서술들을 보면 역사의 시작부터 고대 국가들이 한 핏줄
 을 나누며 이어져 온 단일민족이라는 것과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오다가 삼국통
 일로 단일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고대에 단일민족인 한민
 족이 형성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종족이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왔다는 민족형성론적 입장으로 서술
 하면서도 고대로부터 삼국이 같은 동족임을 간주한 민족기원론적 서술도 같이
 혼재하였는데, 중학교 국사교과서 3종(1-①-4, 1-①-5, 1-①-7)과 고등학교 국
 사교과서 1종(1-②-2)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국사교과서마다 단일민족에 대한 시점이 차이가 난 것은 교과서 집필
 자들마다 민족의 형성을 파악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고
 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왔다고 서술한 집필자들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 혈통·
 언어·문화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객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하였다. 반면에 민족
 형성론적 입장에서 서술한 집필자들은 객관주의적 요소 뿐 아니라 동족의식이라
 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중시, 영토와 주민의 통합을 강조한 결과 점진적으로 단일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고대 삼국의 성립부터나, 신라의 삼국통일
 부터나를 기점으로 단일민족으로 파악하는 데에 각기 이견이 있었다.

한편 신라의 삼국통일을 영토와 주민의 통합을 강조하며 단일민족 국가로 출
 발하였다고 높이 평가한 것과 달리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미 부여가 적고,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했다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다만 가-3-12, 가-3-14, 가-3-16의 서술에서와 같이 발해까지 통합한 것을 강
 조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로 단일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서도 발해를
 한국사로 인정,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가-3-1 ... 이리하여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여 새로운 통일 국가를 이룩하기에 성공하였다. (1-①-1, 四. 고려(高麗)의 재통일 사회 /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64쪽)
- 가-3-2 ... 후백제의 견훤도 그 후,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어, 결국 그 이듬해 고려에 항복하니, 한참 동안 분열을 거듭하던 반도도 이에 다시 통일을 보게 되었다. (1-①-2, Ⅲ. 민족 국가의 발전 / (4) 기울어져가는 신라, 51쪽)
- 가-3-3 ... 이리하여 후백제는 2왕 45년 만에 망하고 우리 민족은 다시 통일하게 되었다. (1-①-3, 제3장 통일 신라의 변천과 그 때의 문화 / 제9과 신라의 민족 통합 정치, 46쪽)
- 가-3-4 ... 한참 동안 혼란하던 국내는 이에 다시 통일되어 민족 발전의 재출발을 보게 되었다. (1-①-4, V. 고려의 재 통일 사회 / 1. 고려의 재 통일, 64쪽)
- 가-3-5 ... 이리하여 그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1-①-5, 제4편 고려 사회 / 제1장 고려의 민족 재 통일, 58~59쪽)
- 가-3-6 ... 신라 경명왕 2년(918) 6월15일은 태봉의 궁예가 쫓겨 나고, 그 뒤를 이어 그의 부하인 왕건(王建)이 즉위해서 새 왕조를 열던 역사적인 날이니, 이 날은 일시 분열되어 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뭉치어, 장차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기틀을 잡은 날이다. (1-①-6, 제4장 고려의 재통일 사회 / 제1절 고려는 어떻게 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는가, 81쪽)
- 가-3-7 ... 고려 태조 왕건은 이 틈을 타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후백제를 쳐서 드디어 이를 항복시켰다(936). 이리하여 후백제는 2대 45년에 망하고, 우리 국토는 다시 통일 되게 되었다. (1-①-7, 제3단원 통일 신라 시대 / 제 15. 신라의 붕괴, 79쪽)
- 가-3-8 ... 왕건(王建)이 그를 집어치우고 대신 임금이 되어 국호(國號)를 고려(高麗)로 고치고 도읍을 개성(開城)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일면 교전(交戰)과 일면 계략(計略)으로써 후백제와 신라를 차례로 쳐부수고 두번째로 3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936). (1-①-8, 단원 三 신라 통일사회 / Ⅲ 통일신라의 쇠망, 45쪽)

가-3-9 … 신라 왕조를 이어서, 후 삼국을 다시 통일한 고려 왕조(高麗王朝)는 그 서울을 그들의 근거지이고 반도의 중앙지인 송악(松嶽 = 즉 開京)에 정하였다. (1-①-9, 제5편 고려의 재통일 사회, 52쪽)

가-3-10 … 이에서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여 새로운 통일 국가를 이룩하기에 성공하였다. (1-②-1, 제5장 고려시대 / 1. 고려 전기(前期)의 사회, 93쪽)

가-3-11 … 송악(松岳 - 개성)을 근거지로 세력을 형성한 왕건(王建)은, 신라의 병합(併合)과 후백제의 항복으로 전후 19년 만에 완전히 후3국(後三國)을 통일하니 우리 나라는 다시 하나의 민족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1-②-2, 제4편 고려 시대 / 1. 전기사회(前期社會)의 정치, 76쪽)

가-3-12 …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려국을 세우고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쓰며(918) 그 다음해(919)에는 서울을 고향인 송악으로 옮기는 한편 평양에 서경(西京)을 두어서 북방 진출의 중심으로 삼고 대략 청천강으로부터 영흥(永興) 이남의 땅을 통일하였다. … 이보다 10년 앞서 북쪽에서도 발해가 글안족에게 멸망되고(926) 그 왕자 대광현(大光顯) 등 수만명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니, 이들을 마지하여 민족적으로 뭉치는 한편 … 이리하여 후삼국의 분란은 45년만에 가라 앉고, 우리 민족은 다시 통일되게 되었으나, … (1-②-3, 제6장 고려의 문화 / 1. 민족의 재통일과 문화의 특색, 96쪽)

가-3-13 …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려국을 세우고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쓰며 (918) 송악을 서울로 삼는 한편 평양에 서경(西京)을 두어서 북방 진출의 근거지로 삼고 대략 청천강으로부터 영흥(永興) 이남의 땅을 통일하였다. … 이보다 1년 앞서 발해 왕자 대광현 등 수만 명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니(934), 이들을 맞이하여 민족적으로 뭉치는 한편 후백제도 합쳤다(936). 이리하여 우리 국토는 다시 통일되게 되었으나, … (1-②-4, 제2편 중세사 / 제6장 고려 시대의 역사와 문화, 94쪽)

가-3-14 … 태조는 신라, 후백제의 귀족, 관리나 지식 분자를 우대하여 인심을 얻으면서 나라의 기반을 굳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통일 정책은 한 걸음 내키어,

거란에게 망한 발해의 고구려 계통 사람들의 귀화를 포섭하여 민족의 일대 통일을 이루었다. (1-②-5, VI 고려 문화의 발달 / 1. 고려의 집권 체제 성립과 초기의 대외 관계, 64쪽)

가-3-15 … 송악(松岳) 지방의 호족(豪族) 출신인 왕건은 해상 세력을 토대로 하고 일어났다. … 이 때 후백제의 견훤은 장자 신검(神劍)과 의가 나빠서 고려로 도망하여 왔는데 태조는 이를 기회로 후백제를 쳐서 멸망시키고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하였다(936). (1-②-6, 제4편 고려 시대 / 제1장 고려 왕조의 성립, 80쪽)

가-3-16 … 궁예를 대신하여 일어난 왕건(王建)은 나라이름을 고려(高麗)라 칭하고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쓰며, … 그후 우선 신라의 귀부(歸附)를 받고(935) 이듬해에는 후백제를 아울러 후삼국을 통일하니 여기에 우리민족은 재통일(再統一)을 보게된 것이다. … 태조 왕건은 온화(溫和)한 융합정책(融合政策)을 실시하여 신라와 후백제의 귀족들을 포섭하고, 또 그때 계단(契丹)에게 멸망한 발해의 고구려계통 사람들을 받아들여 일대 민족국가로 출발하였다. (1-②-7, 제IV편 고려 사회 / 제1장 고려 전각의 정치와 대외관계, 76쪽)

가-3-17 … 또 왕건이 쳐들어가자, 공산(公山, 永州地方)에서 왕건을 무찔렀으나, 경순왕(敬順王, 金傳) 4년(931) 고창(古昌, 安東)의 싸움에서 패하며, 뒤에 왕위를 아들 신검(神劍)에게 빼앗기자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신검은 왕건에게 대항하여, 일리천(一利川)에서 싸웠으나, 패하여 후백제는 고려에 항복케 되었다. 이에 대세는 결정되었으므로, 경순왕은 고려의 서울 개성(開城)으로 왕건을 찾아 항복함예(敬順王 3年, 高麗太祖 13年, 935) 신라의 사직을 끝마치었다. 왕건 태조는 국내 통일을 완성하며, … (1-②-8, 제V장 고려의 문화 / 1. 고려의 통일과 변천, 72~73쪽)

이상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교과서 서술은 일제강점기에 발전한 종족민족주의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민주의에서 비롯된 단일민족 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기원하였든 여러 종족들이 통합되면서 단일민족으로 형성되었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면서 단일민족으로 통합한 것처럼

럼 한국의 주도로 분열된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당시 시대상의 반영을 엿볼 수 있다.⁴⁵⁾

그럼에도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기원하였다는 민족 기원론적 서술 못지 않게 민족 형성론적 서술이 많았던 것은 1920년대 손진태 등의 연구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만주계통의 통구스를 비롯한 신(新)시베리아족과 구(舊)시베리아족, 소수의 인도차이나족과 왜족(倭族) 등이 한반도로 이주해 와서 혼혈되면서 오랜 역사를 거쳐 한민족의 혈통으로 동화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가 각기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삼한일통과 고려의 통일로 민족의식이 형성된 여러 종족의 혼혈을 거치면서 형성된 민족이지 역사의 시작부터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이다.⁴⁶⁾

이는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일민주의의 영향 아래에서도 민족 형성론적 입장의 연구 성과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점, 교과서 집필자들 사이에 ‘민족’ 개념과 ‘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었던 점과 아울러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담은 국사교과서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검정제의 특징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45)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23쪽.

46) 이기동, 「기원 연구의 흐름」,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16~17쪽.

3.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3)

(1) ‘조국근대화’ 달성을 위한 단일민족 의식 고취

제1차 교육과정은 편제상으로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생활 중심·경험 중심·아동 중심을 강조한 미국 진보주의 교육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적인 교육 방향에서 국사 교육시간이 상당히 할애되었음에도 민족 자주성이 중시되지 않았다.⁴⁷⁾ 이에 1958년부터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이던 박만규가 교육과정 개정 구상을 발표하는 등 제1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⁴⁸⁾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사회의 민주화, 자주적 민족의식 모색이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문교부는 ‘교육과정 지침’을 발간하는 데에 그쳤고, 자주적 민족의식에 입각한 교육체제 확립의 구상이나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⁴⁹⁾

그런 와중에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제1차 교육과정 개편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서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이른바 ‘조국근대화’로 표방된 국가주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을 ‘조국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으로 표현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를 고취했다. 경제 개발을 집권의 명분으로 삼은 박정희 정부는 민족주의를 반공, 개발주의와 배합하며 이용했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2월, 문교부는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을 공포·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전 교육과정에서 미숙했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자주성의 강조를 신설하면서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47)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155쪽.

48) 그는 반공 전력 증강에 의한 국토 통일과 산업 재건에 의한 국민 경제 안정을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기본적 요청이라 지적하고, 경제 재건을 위해 직접 대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학습 체제를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만규, 「교육과정의 검토와 개선의 구상」, 『새교육』 11권 1호, 1959, 43쪽.

49)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 역사교육연구회, 1996, 3~4쪽.

50)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167쪽.

는 미국식 교육의 영향과 제정 당시의 여건 미비로 한민족의 자주성이 결핍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선정하여 민족의식 함양과 자주성을 고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⁵¹⁾

이런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제2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육은 박정희 정부의 ‘조국근대화’ 이념을 적극 반영하여 애국애족, 반공 민주국가, 국제협조, 민족정신과 민족문화, 경제 발전 등이 교육 목표로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인들의 책임과 의무, 민족적 자각과 단합, 협동적 공동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저술이 진행되었다.⁵²⁾

이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단일민족 의식을 함양시켜 애국애족 정신을 확립,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했고,⁵³⁾ 고등학교 과정에서 민족애를 고취시킨 뒤 당시 ‘조국근대화’ 달성에 기여하는 인재로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⁵⁴⁾ 또한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정부의 이념을 반영하듯이 반공 사상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이 제2차 교육과정의 큰 특징이었고,⁵⁵⁾ 나아가 민족의 앞날 개척에 적극 공헌하는 국민으로 양성하도록 주문했다.⁵⁶⁾

51)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는 인간상은, 박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고,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겨레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해하고, …(중략)… 그러나 구 교육 과정은 제정 당시의 여건의 미비로, 선진 국가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거나 해방전의 교육 과정을 많이 참작한 관계로, 우리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략)… 금번 개정에서 구체적이고 자주적인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우리 국가 민족의 무궁한 민주적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문교부령 제120호(1963.2.15.)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2)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175쪽.

53) 1. 우리 나라의 발전 과정 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 정신을 이해시킴으로써 애향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신념을 기른다. [문교부령 제120호(1963.2.15.)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4) (1) 국사의 전 발전 과정을 통하여 발양된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찾아 민족애를 철저히 하는 한편 민족적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올바른 반응을 가지게 하며, 그를 시정하고 민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령 제121호(1963.2.15.)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5) (4) 우리 나라의 세계적 지위를 올바로 이해시킴으로써 반공 사상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문교부령 제121호(1963.2.15.)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6) (1) 고등 학교에서의 국사 교육은 국사 발전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시키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민족의 앞날의 개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2) 민족기원론 입장이 증가한 교과서 서술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들어 국사교과서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민족 기원론에 입각한 내용을 저술한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들이 제1차 교육과정 시기와 비교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이전에 서술된 내용과 같이 고조선 이래 부여·삼한 등의 부족 국가들은 물론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서로 동족의식을 가졌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어와 풍속 등 객관주의적 요소의 동일함만을 강조하며 모두 한 핏줄을 나눈 단일민족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나-1-1 … 우리 민족은 여러 개의 부족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같은 핏줄이었으므로 사회의 제도나 풍습에는 큰 차이가 없어 비교적 사이 좋게 지냈다. 대동강 유역은 한때 이민족이 자주 침범하였으나 여러 부족들이 한결같이 단결하여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족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2-①-2, 단원 1. 원시시대의 생활 / Ⅲ. 고조선의 사회, 23쪽) … 각 부족들을 단위로 해서 고대 국가를 이룬 고구려 · 백제 · 신라는 원래 같은 겨레였으므로, 낙랑의 세력을 몰아낼 때에도 3국이 서로 힘을 합하였고, 좋은 뜻에서의 경쟁도 하였다. (2-①-2, 단원 2. 고대 국가의 자라남 / Ⅲ. 우리 나라 3국의 모습, 52쪽)

나-1-2 … 우리 민족은 처음에 여러 개의 부족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같은 핏줄이었다는 것과 사회 풍습이 비슷함을 알자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외래 민족이 침입하였을 때는 서로 힘을 합쳐 격퇴시켰던 일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일찍부터 동족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①-3, 단원 1. 역사의 시작과 우리 민족 / 3. 부족 국가들의 생활, 16쪽) … 각 부족들을 단위로 해서 고대 국가를 이룬 고구려 · 백제 · 신라는 원래 같은 겨레였으므로, 낙랑의 세력을 몰아낼 때에도 3국이 서로 힘을 합하였고, 좋은 뜻에서 문화 발전을 위한 경쟁도 하였다. 3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고구려나 씨족 사회 때의 전통이 오래 남아 있던 신라 또는 백제는 서로 언어 · 풍속 · 습관 등에 공통되는 점이 많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국이 단일 민족의 일시적 분열이었음을 말해 주는

로 공헌할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문교부령 제121호(1963.2.15.)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것이다. (2-①-3, 단원 2. 삼국 시대의 생활 / 3. 삼국의 사회와 경제, 28쪽)
 … 3국시대는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었던 분열된 상태였으나,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단일 민족으로서 정치 · 사회 · 문화가 하나로 뭉쳐 민족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 다만 지역적으로 만주의 넓은 땅을 잃고 한반도 안에만 축소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2-①-3, 단원 3. 통일 국가의 형성 / 1. 민족 국가의 성립, 42쪽)

나-1-3 … 이들은 여러 곳에 나뉘어져 사는 동안에 풍속과 문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겼으나,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에 속하므로, 오늘날 한 핏줄에서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2-①-5, 제1장 움돋아 오르는 인류 문화 / 2. 우리 역사의 새 아침, 15쪽) … 자리 잡힌 사회 생활 삼국은 같은 민족이므로, 언어 · 풍속 · 생활의 모양이 비슷하였으나, 환경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2-①-5, 제2장 자라나는 고대 문화 / 2. 대륙 세력과 우리 삼국 문화, 45쪽) … 이리하여 신라는 대동강 하구와 원산을 연결하는 이남의 땅을 지배하게 되니, 비로소 우리 민족은 한 나라로 통일되었다. (2-①-5, 제3장 자리잡히는 중세 문화 / 1. 통일 신라의 생활, 66쪽)

나-1-4 … 이들은 여러 곳에 나뉘어져 사는 동안에, 풍속과 문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겼으나,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민족에 속하므로, 오늘날 한 핏줄에서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2-①-7, 제1장 원시 사회와 우리나라 / 2. 우리 역사의 새 아침, 8~9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단일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민족적 과업을 달성한 것이며, 이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였고, 하나의 정부 밑에 통일된 문화와 사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①-7, 제2장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대륙 세력과 삼국 문화, 31쪽) … 자리 잡힌 사회 생활 삼국은 같은 민족이므로, 언어 · 풍속 · 생활의 모양이 비슷하였으나, 환경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2-①-7, 제2장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대륙 세력과 삼국 문화, 32쪽)

나-1-5 … 이들은 여러 갈래로 번창하여 살기 좋은 강 줄기의 벌판을 찾아서 남으로 내려 왔는데 그들은 지금의 압록강 · 청천강 · 대동강 유역에 새 부족들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부족은 다르지만 그 큰 줄거리는 같은 것이었다. (2-①-9, 단원 1. 인류 문화의 시작 / Ⅱ. 우리 민족의 기원, 17쪽) … 3국이 정치적으로나 종족적으로 각기 독립되어 있는 동안은 우리 민족의 통일 완성은 기할 수 없었다. 북방의 고구려족과 남쪽의 한족(韓族)은 원래 같은 종족이었으나 오랫동안 생활 환경이 달라서 언어와 풍속에도 차이가 많았던 것이다. 이제 비록 고구려가 차지하던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신라에 의한 정치적 통일은 차츰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토대가 된 것이었다. (2-①-9, 단원 3.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발전 / Ⅱ.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90~91쪽)

나-1-6 … 삼국은 모두 다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 풍속, 습관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국민성과 문화가 조금씩 달랐다. (2-①-11, Ⅱ.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2. 삼국의 사회와 문화, 19쪽)

나-1-7 …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단일 민족으로서 언어 · 풍속 · 생활 등이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약간 생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2-①-12, 단원 2. 삼국 시대와 고대 세계의 생활 / Ⅲ. 삼국 시대의 생활과 이웃 나라와의 관계, 43~44쪽) … 신라의 반도 통일은 비록 완전한 삼국 통일은 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갈라져서 살던 우리 민족을 통합하여 한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①-12, 단원 3.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발전 / Ⅱ.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73쪽)

나-1-8 … 일찍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만주와 반도 각지에서도 부족 국가가 형성되었다. 각 부족 국가는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인문 활동에도 다소의 차이가 생겼으나, 모두 우리 겨레의 부족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2-②-1, 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 시대 / 2. 우리 민족의 건국과 발전, 9쪽)

나-1-9 … 삼국은 모두 같은 민족에 속하지마는 북방의 고구려와 남방의 백제 · 신라와
는 그 예술의 특징이 다소 다른 점이 있었다. (2-②-2, 제3장 삼국 시대의 생
활 / 제3절 삼국의 문화, 44쪽) … 원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어나 문
 화 등의 이질적 요소는 적었으나 오래 계속된 적대 의식은 적극적인 무마 정책
 으로써만 그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2-②-2, 제4장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제1절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합 정책, 58쪽)

나-1-10 … 역사상 만주와 반도 북부에 있던 부족을 부여(扶餘) 또는 예맥(濊貊)이라
 하고, 반도 남부에 거주한 부족을 한(韓)이라 한다. 이 두 부족은 본래 혈통이
같고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까닭에 후에 서로 합하여 우리 한족(韓族)을 이루
었다. (2-②-3, 1. 역사의 시작 / 1. 우리 민족의 내력과 국토, 2쪽) … 이로
써 반도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단일 국가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동 운명체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중대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②-3, IV.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
 족 통합 정책, 59쪽)

나-1-11 … 이리하여 신라의 영도하에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자
 주적 민족 국가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비록 불완전
 한 통일이었으나 통일이 가져온 민족사적 의의는 큰 바가 있다. 먼저 단일 민
족의 통합이다. 원래 북방의 고구려족과 남방의 한족(韓族)은 한 핏줄기를 이
어받은 민족이었으나, 오랫동안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은 갈라졌던 민
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으며 민족이 가진 언어 · 풍속이 한반도를 지배하여
오늘의 우리 민족을 낳게 하였다. (2-②-5, 단원 4.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합 정책, 63~64쪽)

나-1-12 우리 민족의 성립 우리 역사의 주체자는 대한 민족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
안에 여러 요소가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 요소는 항상 우세하였다. 그러기
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자랑 삼고 있다. (2-②-6, 제1편 우리 역사의
시작 / 제1장 우리 역사의 출발, 4쪽) … 고조선 이후로 우리 민족은 남북 각
지에 여러 부족 국가를 이루었다. … 이들 부족 국가는 비록 각지에 자리잡았으

나 모두 우리 겨레이며, 다만 생활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각기 특색 있는 발전을 보였을 뿐이다. (2-②-6, 제1편 우리 역사의 시작 / 제2장 부족 국가 시대의 우리 나라, 11~12쪽) … 이로써 오랫동안 서로 다른 성장을 보였던 우리 민족이 통일 민족으로 통일 국가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민족의 위협에서 민족의 독립을 전취한 민족 사상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게 되었다. (2-②-6, 제2편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 / 제2장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43쪽)

나-1-13 우리 민족의 유래 … 이들은 주로 황인종(黃人種)인 통그스족(Tungus 族)의 한 갈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동하여 한 민족으로 융합하였다. 그들은 한 종족 집단으로 뭉쳐져 문화 민족을 구성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중심은 오늘날 북 만주 지역에 자리잡았던 부여족(夫餘族)이었다. 이를 또한 예맥(濊貊)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 민족의 기원을 이루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이다. (2-②-7, I. 역사의 시작 / 1. 원시 시대의 유물과 유적, 5쪽) … 반도 안에서 일어난 북방과 남방의 부족 국가들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모두 한민족(韓民族) 계통의 국가들이었다. (2-②-7, III. 삼국 시대의 생활 / 1. 삼국의 성장과 변천, 28쪽) … 약 8년간이나 존속하였던 웅진 도독부를 축출하고 평양에 설치한 안동 도호부도 만주로 몰아 냄으로써 숙원이던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으니,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元山灣) 이남에 이르는 반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676). 이로써 우리 민족은 역사상 최초의 단일 왕국 아래 단일 민족으로 뭉쳤다. (2-②-7, III. 삼국 시대의 생활 / 4. 삼국의 대외 관계, 58쪽) … 그러나, 옛날 삼국 시대의 넓은 영토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민족 통일을 완수하여 본래의 한 민족 계통이었던 단일 국가를 형성한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 삼국이 지리적 환경을 다소 달리하고 오랜 동안 정치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동일한 민족으로 언어가 같고 풍속이 비슷하여 통치에 있어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2-②-7, IV.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합 정책, 62쪽)

나-1-14 … 삼국은 다 같은 민족이지마는 북방의 고구려와 남방의 백제 · 신라 양국과는 그들의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 (2-②-8, 단원 3. 삼국 시대의 생활 / III. 불교의 전래와 예술의 발달, 53쪽)

나-1-15 … 그리고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핏줄기를 같이 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우리 조상들이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할 적에 홍익 인간의 숭고한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2-②-9, 단원 Ⅰ. 원시 사회와 부족 국가 시대 / 제2장 금속 문화의 전래와 고조선, 16~17쪽) … 그러나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 나름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이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2-②-9, 단원 Ⅲ. 통일 신라의 사회와 문화 / 제1장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의 형성, 59쪽)

이상 민족기원론에 입각한 서술이 제1차 교육과정 시기 9종(중학교 6종, 고등학교 3종)보다 15종(중학교 7종, 고등학교 8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단일민족 의식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족형성론에 입각해서 서술한 국사교과서들도 많았는데, 제1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12종(중학교 7종, 고등학교 5종)이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 통합의 시기로 설정하며 그 이후를 단일민족으로 간주했다.

나-2-1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민족의 조상은 중국 북방, 몽고, 만주에서 육지 또는 해안을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도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융합된 결과, 한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2-①-1, Ⅰ. 우리 역사의 시작 / 1. 우리 민족의 원시 생활, 4쪽) … 신라의 통일은 옛 3국을 온전하게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갈라져 있던 세 나라를 통일함으로써 한 독립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외세의 지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낸 결과 다음날에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2-①-1, Ⅱ.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4. 신라의 삼국 통일과 전성, 24~25쪽)

나-2-2 … 우리 겨레는 동시에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여러 갈래로 나눠져 한반도로 들어와서 제각기 살기에 알맞는 곳에 자리잡고 살았다. (2-①-2, 단원 1. 원시 시대의 생활 / Ⅲ. 고조선의 사회, 18~19쪽)

나-2-3 ... 이와 같은 한족의 침략에 대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 의식과 자각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부족 국가들이 나타나 한 군현을 괴롭혔으며 우리 부족 국가 사이에는 단결과 통합의 움직임이 강렬하여 마침내 삼국의 나타남을 보게 되었다. (2-①-4, Ⅰ. 우리 역사의 시작 / 2. 우리 나라의 건국, 12쪽) ... 676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대동강 · 원산만 선 이남의 강역을 차지하였고 우리 겨레는 신라라는 한 지붕 밑에 비로소 뭉치게 되었다.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은 우리 겨레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다. 세 덩어리로 흩어졌던 우리 겨레가 신라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통일된 단일 국민으로서 동일한 문화의 바탕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2-①-4, Ⅱ.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3. 삼국의 대외 관계와 신라의 삼국 통일, 40쪽)

나-2-4 ...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거처온 길과 들어 온 시기 및 머물러 산 지방의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지방에 따라 어느 정도 사회 발달에 차이가 있고 풍속 · 문화의 구별이 생겼으나, 오랜 세월을 지나는 사이에 한 민족을 만들고 공통의 문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2-①-6, 단원 Ⅰ. 인류 문화의 시작 / Ⅱ. 우리 민족의 원시 생활, 13쪽) ...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실로 우리 나라 역사상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단일 민족 국가(單一民族國家)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삼국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제각기 나누어져서 국가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의 국가 속에 포함되어 오늘날의 한국 민족을 형성하는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2-①-6, 단원 Ⅲ.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발전 / Ⅱ. 수 · 당과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91쪽)

나-2-5 우리 민족의 유래 우리의 먼 조상들은 대체로 1만년 전에서 4~5천년 전에 걸치는 사이에, 중국 북방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만주 일대와 한반도에 걸쳐 살게 되었다. 그들은 몽고 인종[즉 황인종] 중의 아시아 북방 계통인 퉁구스족에 속하며, 오랜 생활을 통하여 이웃의 여러 종족[중국 · 몽고 · 만주 · 일본족]과도 다른 육체적 특징과 언어와 습성[풍속]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길은 대개 세 갈래인 듯하다. 한 줄기는 만주의 랴오허강 상류와 쑹화 강 유역에서 압록강 상류 및 중류로 남하하여 다시 척량 산맥을 넘어 반도 동해안 지대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한 줄기는 중국 북방에서 해안을 따라

반도 서해안 지대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는 중국의 산둥 반도로부터 바다를 건너 반도 서해안 지대에 이르는 길이다. (2-①-8, 1. 우리 역사의 시작 / I. 우리 민족의 원시 생활, 2쪽) … 여러 부족 국가 고조선 지방이 한족에게 지배되는 동안, 그 주변에서 여러 부족 국가가 일어났다. 이들 부족 사회에서는 서로 공통되는 언어를 쓰고, 습속이 대체로 같고, 그 육체적인 체질도 같아서 이미 하나의 민족을 이룩할 기반 위에 있었다. (2-①-8, 1. 우리 역사의 시작 / III. 부족 국가의 발전과 사회 생활, 11쪽) … 민족의 단결과 통일 … 그리하여, 당의 세력을 몰아내기에 성공하고 지금의 대동강 이남의 땅을 차지하여[735], 만주에서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와 남북조를 이루게 되었다. (2-①-8, 2.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II. 삼국의 대외 관계와 신라의 삼국 통일, 28쪽) … 신라 서쪽의 변영 신라는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반도를 완전히 통일한 뒤로는, 당 나라에 대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왔다. (2-①-8, 2.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V. 통일 신라의 대외 발전과 쇠망, 34쪽)



나-2-6 … 일찌기 서해안 지대로 이동한 부족으로는 고조선과 한족 등이 있고, 좀 뒤늦게 동북방 통로를 취한 부족으로는 부여 · 고구려 · 옥저 · 예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부족들이 뒤에 통합되어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세 고대 국가를 이루었고, 그 뒤 신라가 이 삼국을 통합하여 민족의 통일을 보았다. (2-①-10, 1. 우리 역사의 시작 / 1. 우리 나라의 원시 사회, 3~4쪽) … 이 세 지역에 살던 삼국의 국민이 한 정부, 한 제도, 한 풍속 아래 뭉치게 되어 민족의 단일 국가를 처음으로 이루게 된 것이다. (2-①-10, IV.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그 문화 / 1. 통일 신라의 문화, 40쪽)

나-2-7 … 신라의 통일은 고구려의 영토와 유민의 전부를 얻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만, 그 래도 이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하나의 정부 아래 뭉쳐 단일 민족으로서 자라게 되었다. (2-①-11, II.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3. 삼국의 대외 관계와 신라의 삼국 통일, 32쪽)

나-2-8 우리 민족의 유래 우리 민족은 대한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하나의 혈통을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인종학상의 위치는 알타이 어족의 한

계통으로서, 원주지는 명확하지 않다. (2-②-1, 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 시대 / 1. 우리 나라의 원시 사회, 2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잃고, 민족 자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민족을 개입시켰다는 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의 정부 아래 단일 민족으로서 발전할 토대를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2-②-1, II.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삼국의 형성과 통일 국가의 출현, 22쪽)

나-2-9 … 그 두드러진 것은 즐문 토기를 사용하던 한 갈래의 뒤를 이어 무문 토기를 사용하는 한 갈래가 들어와 선주민을 동화하고 뒤에 들어온 단도 마연 토기를 사용하던 한 갈래도 동화하면서 차츰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어 온 것 같다. (2-②-2, 제1장 역사의 시작 / 제3절 우리 민족의 내력과 건국, 12쪽) … 우리 민족은 신라의 삼국 통일로 말미암아 한 국가 아래에 통합되어 단일 민족으로 통일되게 되었다. 같은 민족이긴 하였으나 삼국의 정립이 오래 계속되었더라면 그 차이가 심하여져 통일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터인데 이를 단축시켜서 단일 민족이 되게 하였음은 우리 민족사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2-②-2, 제4장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제1절 신라의 삼국 통일과 민족 통합 정책, 57쪽)

나-2-10 … 드디어 문무왕 16년(676)에 이르러 대동강과 원산 이남의 땅을 확보하여 비로소 민족의 통일을 달성했다. 결국 신라의 통일은 국토를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시키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였으나,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과 민족의 자주성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한편 여·제 귀족에게도 관직의 길을 열어 주고 중앙 군대에도 참여시켜, 민족 융합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단일 민족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2-②-4, 제4장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1. 삼국의 통일과 민족의 융합, 57쪽)

나-2-11 … 민족의 구성(構成)에 관하여는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한 단일 민족(單一民族)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인종이 수천년의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서로 합쳐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된 것 같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일찌기 중국 고전에서는 맥(貊) 혹은 예맥(濊貊)으로 불리어졌으며, 몽고인, 만주인 등의 여러 인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뚜렷하여 예맥족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요소를 융합시키면서 오늘날의 한민족으

로 발전해 나아간 것이다. (2-②-5, 단원 1. 역사의 시작 / Ⅲ. 우리 민족의 내력과 건국, 12쪽)

나-2-12 그런데 북방에서 남하하여 온 주류(主流) 이외에도 대륙으로부터 여러 족속들이 서북 방면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여 나가는 동안에 독특한 문화 민족으로 자라 나가게 되었으며 남해안 지대의 섬에는 멀리 남방 계통의 족속도 부분적으로 섞였다. (2-②-8, 학습에 앞서서 / 2. 민족의 유래, 2쪽) … 우리 나라의 환경은 이와 같이 복잡하며 유구한 시대에 걸친 민족의 유래 역시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 민족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도 항상 비슷한 작용을 하여왔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 민족은 씨족 사회에서부터 부족 국가와 그 연맹체를 거쳐 민족 통일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2-②-8, 학습에 앞서서 / 3. 민족과 사회, 2~3쪽) … 여기서 다시 남으로 내려오면서 대륙으로부터의 여러 족속들이 합류되고 또 남해안 지대에는 부분적으로 멀리 남방 계통의 종족도 섞여서 독특한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여 온 것이다. (2-②-8, 단원 1. 역사의 시작 / Ⅱ. 우리 민족의 내력과 건국, 16쪽)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인 의미는, 첫째로 민족을 통일하였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여러 부족 국가로 갈라져 있고 혹은 삼국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차츰 사회와 문화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2-②-8, 단원 4.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Ⅱ. 통일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및 종교, 67쪽)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교과서 서술들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일민족 형성의 시점을 보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 고대에 단일민족인 한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 형성론적 입장과 민족 기원론적 입장이 같이 혼재된 국사교과서가 여전히 존재하였는데, 중학교 국사교과서 2종(2-①-2, 2-①-11)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4종(2-②-1, 2-②-2, 2-②-5, 2-②-8)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나-2-5에 제시되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 통합의 시기로 설정·인정하면서도 발해도 한국사로 포함한 남북국 시대론의 영향에 따라 ‘남북조’ 시대라고 서술한 국사교과서가 등장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서술이 등장하는 데, 이른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었다.⁵⁷⁾

나-3-1 … 부여족과 고구려족은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의 세력을 막아내고 방파제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2-①-3, 단원 2. 삼국 시대의 생활 / 1. 세 나라로 뭉침, 23쪽)

나-3-2 … 이리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대륙 세력의 침투를 힘차게 물리쳐 우리 민족의 용맹을 휘날리면서 한반도에 있던 백제와 신라의 방벽 구실도 하던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2-②-2, 제3장 삼국 시대의 생활 / 제4절 백제 · 고구려의 멸망, 53쪽) … 이렇게 같은 민족의 세력이 남북으로 분열 대립하여 반목하고 서로 그 발전을 견제한 것은 민족사상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발해가 신라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 신라는 북방 세력의 침략에서 막아 주었고, 고구려를 이어 만주 일대를 지배한 사실은 우리 민족의 통일 발전에 큰 의의를 갖는다. 이리하여 발해가 망한 뒤부터는 고구려 선민들이 귀토(歸土)시켰던 만주는 영영 이민족의 손에 넘어가고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은 직접 대륙 세력에 접하게 되어 그들의 성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2-②-2, 제4장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제4절 발해의 흥망과 그 문화, 73~74쪽)

이렇게 고대 삼국이 서로 동족의식을 가졌다고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은 원래 일본 식민사학의 만선사관에서 비롯되었는데,⁵⁸⁾ 고구려를 만주사로 파악하며 한국사에서 분리시킨 일본 학자들과 달리 이기백 등 광복 이후의 한국 학자들은 고구려가 “한반도의 존립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

57)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교과서 2종(1-①-3, 1-①-6)에서 고구려가 중국 왕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민족적 저항을 보여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사실로 칭송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애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고구려가 민족적 단결을 통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당대 시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것을 은연 중 촉구하고자했다. 유홍렬, 『우리나라 역사』, 탐구당, 1956, 24쪽;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41쪽.

58) “예로부터 한반도의 세력으로서 북진했던 것은 천년 동안 오직 고구려 왕국뿐이었고, (고구려) 왕국은 요동반도를 확수(確守)하고 한반도(韓半島)의 존립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도엽군산(稻葉君山, 이나바 기미야마), 「한반도의 보장과 요동반도(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 『동양시보(東洋時報)』 106, 1907, 57쪽 ; 박찬흥, 「만선사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동북아역사재단, 2005, 199~200쪽.

다.”는 주장을 채택하여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으로 변용시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⁵⁹⁾ 이는 단일민족 의식 함양을 강화한 제2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국사교과서 저술에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고구려가 중국 세력으로부터 같은 동족이었던 백제와 신라를 보호하여 오늘날 한민족의 존립을 보존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고대로부터 이어온 단일민족이었다는 역사적 의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나-3-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신라에 대한 발해의 방파제 역할론이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의 연장선에서 서술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은 후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의 국사교과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제1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단일민족으로의 출발로 높이 평가한 것에 비해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했다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발해를 한국사로 포함시켜야 했기에 나-4-4의 서술에서와 같이 발해까지 통합한 것을 강조하였다.

나-4-1 … 태조는 이 틈을 이용하여 후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다(936). 이로써 후 3국이 완전히 통합되어 다시 국토의 통일을 보게 되었다. (2-①-1, Ⅲ. 고려 시대의 생활 / 1. 새 통일 왕조의 형성, 38쪽)

나-4-2 …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도읍지를 개성으로 옮겨 후삼국의 소란을 통일하였다(936). (2-①-2, 단원 3. 통일 국가의 형성과 세계 / Ⅱ. 복진하는 고려, 70쪽)

59) 이기백은 『한국사신론』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를 서술하면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은 한국 학계는 물론 국사교과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변태섭도 『한국사통론』에서 이를 계승하였다.

“수·당의 침입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는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민족 항쟁사 상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당시 수나 당의 야심은 고구려를 정복함으로써 동양에 있어서의 패권을 쥐자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고구려가 패하였던들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까지도 그 지배 밑에 놓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들 침략자를 물리침으로써 이 민족적 위기를 구출하는 방파제의 구실을 다하였다. 고구려의 승리가 지니는 민족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6, 69쪽.

- 나-4-3 ... 이로써 약 반세기 동안의 후삼국이 다시 고려에 의하여 재통일되었고, 고려는 신라를 이어 받아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2-①-3, 단원 3. 통일 국가의 형성 / 4. 기울어지는 신라, 52쪽)
- 나-4-4 ... 발해가 거란에게 망하매, 망명해 오는 발해의 태자인 대광현을 비롯하여 수많은 귀족과 유민들을 받아 들였으며 거란과의 국교를 막았으니 이는 태조의 동족애에서 나온 것이다. ... 태조는 이 틈에 후백제를 쳐서 멸망시키니, 우리 겨레는 다시 한 정부 밑에 통일되었다. (2-①-4, Ⅲ. 고려 시대의 생활 /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55~56쪽)
- 나-4-5 ... 918년 고려를 건국하게 된 태조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지속적인 항복을 받음으로써,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하나의 주권 밑에 통일하였다. (2-①-5, 제3장 자리잡히는 중세 문화 / 2. 자라나는 고려 사회, 77쪽)
- 나-4-6 ... 918년에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王建)은 이듬해 서울을 송악으로 옮기고, 신라와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936년). (2-①-6, 단원 Ⅲ.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발전 / Ⅲ. 고려 시대의 생활과 동양 여러 나라의 변천, 104쪽)
- 나-4-7 ...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된 태조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지속적인 항복을 받음으로써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하나의 주권 밑에 통일하였다. (2-①-7, 제3장 고려 시대의 생활 / 1. 자라나는 고려 사회, 53쪽)
- 나-4-8 ... 다음해에 신검도 왕 건의 군사에게 패하여 항복하고, 일시 세 나라로 나누어졌던 신라 말기의 혼란도 왕 건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게 되었다. (2-①-8, 2.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 V. 통일 신라의 대외 발전과 쇠망, 37쪽)
- 나-4-9 ... 이리하여 왕건은 후3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 새 왕조의 정책 태조 왕건은 반도를 통일하고 새 왕조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에 노력하였다. (2-①-9, 단원 3.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발전 / Ⅲ. 고려 시대의 생활과 동양 여러 나라의 변천, 103쪽)
- 나-4-10 ... 태봉과 후백제가 서로 싸우는 동안 신라는 점점 쇠약하여져서,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된 고려 태조 왕 건에게 나라를 바치고(935), 한때 크게 성하였던 후백

제도 내부의 불화로 드디어 왕 건에게 항복하고 말았다(936). 이리하여 오랫동안 어수선하던 반도는 다시금 통일을 보게 되었다. (2-①-10, IV.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그 문화 / 3. 신라 귀족 사회의 부패와 후삼국의 출현, 49쪽)

나-4-11 … 고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군을 거느리고 쳐내려가 드디어 후백제를 멸하였다(936). 여기에 후백제는 2대 45년만에 망하고, 우리 국토는 다시 통일되었다. (2-①-11, III. 고려 시대의 생활 /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45~46쪽)

나-4-12 … 이리하여, 신라를 차지하게 된 고려의 태조는 군사를 다시 일으켜 후백제를 치니, 마침내 신검은 황산(黃山)에서 항복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고(936), 이로써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한반도는 고려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어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2-①-12, 단원 4. 고려 시대의 생활 / 1.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통일, 84쪽)

나-4-13 **후삼국과 민족의 재통일** … 견훤이 아들 신검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고려에 망명하고, 후백제의 신검은 태조의 정벌을 받아 멸망함으로써 후삼국은 고려에 의하여 통일되고 말았다(936). (2-②-1, III. 고려 시대의 생활 / 1. 고려 시대의 정치, 47쪽)

나-4-14 … 후삼국의 형성은 더 한층의 굳은 민족 통일을 위한 과도적 시련 과정이었으며, 후삼국을 통일하여 신라를 계승한 고려 왕조는 시련기에 처한 민족을 재통일하여 통일된 국가 생활로써 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었다. (2-②-2, 제5장 고려 시대의 생활 / 제1절 후삼국과 민족의 재통일, 82쪽)

나-4-15 … 수개월 후, 견훤이 고려로 도망하여 구원을 청하므로 태조는 극히 이를 우대하고, 이듬 해 신검을 토벌하여 약 40년 동안 분열하였던 민족을 재통일하였다(936). (2-②-3, V. 고려 시대의 생활 / 1. 후삼국과 민족의 재통일, 82쪽)

나-4-16 … 그는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고 송악(松岳)에 수도를 두어 고구려의 웅대했던 번영을 다시 찾으려는 야망을 품었다. 따라서 왕 건의 주목표는 민족의 재통일이었다. …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투항으로 신라의 전 통과 권위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왕 건은 다음 해에 내분에 허덕이던 후백제를 멸망시켜 그가 왕이 된 지 19년 만인 936년에 다시 민족과 국가를 재통일하였다. (2-②-4, 제5장 고려 시대의 생활 / 1. 고려의 재통일과 왕권의 확립, 79쪽)

나-4-17 … 태조 왕 건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신라와 친근책을 써서 우호관계를 맺고 후백제에 대항하였다. … 이리하여 민족의 분열기인 후삼국 시대는 약 50년만에 재차 고려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2-②-5, 단원 5. 고려 시대의 생활 / I. 민족의 재통일, 87쪽)

나-4-18 … 고려를 개창한 왕 건은 국도를 자기 근거지인 송악(松岳)으로 옮기고 흡어진 민족의 재통일에 힘썼다. … 이러한 정치계의 새 정세에 임한 신라 경순왕(敬順王)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바치고 귀순하게 되니, 이에 고려는 신라의 전통과 권위의 계승자로 국토 통일과 민족 융합에 나서게 되었다(935). 신라가 망한 다음 해에는 후백제까지 항복시켜 지배하게 되니, 근 반세기 간의 후삼국 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 민족은 다시금 통일 국가 치하의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2-②-6, 제3편 고려 시대의 생활 / 제1장 고려의 성립과 발전, 62~63쪽)

나-4-19 … 왕 건이 고려 태조로 추대되었다고 해서 후삼국이 통일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후백제의 세력 흡수와 쇠잔해 가는 신라를 병합해야만 민족의 재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후백제가 일어난 지 반 세기 만에 흡수당함으로써 고려는 신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민족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반도의 새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로부터 고려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었으니, 후삼국의 흥망은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한 하나의 시련적인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2-②-7, V. 고려 시대의 생활 / 1. 후삼국과 민족의 재통일, 86~87쪽)

나-4-20 … 이로써 고려의 반도 통일은 거의 완성되어 갔으며, 다음 해에 왕건은 후백제를 쳐서 항복시키어 근 반세기에 걸친 후 삼국의 분열 . 항쟁은 끝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다시 통일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2-②-8, 단원 5. 고려 시대의 생활 / I. 후 삼국과 한 반도의 재 통일, 90쪽)

나-4-21 … 이를 기회로 고려는 후백제를 토벌하여 드디어 항복시키니(936),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반도는 고려에 의해서 다시금 통일되기에 이르렀다. (2-②-9, 단원 IV. 고려 시대의 사회와 문화 / 제1장 민족의 재통일과 국가 체제의 정비, 83쪽)

이상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교과서에서는 민족기원론에 입각한 교과서 서술이 증가하였지만, 민족형성론에 입각한 서술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는 당시 1960년대 김정학 등이 한민족은 북방계와 극소수 남방계의 혼혈이었음을 밝힌

연구 성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⁶⁰⁾ 또한 민족의 형성 시점에 대한 교과서 집필자들의 견해 차이, 그리고 교과서 검정제의 특성으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담은 국사교과서들이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지만 혈통·언어·문화 등의 객관주의적 요소만을 강조하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동질성이 있었다고 하였을 뿐, 고대 삼국이 동족의식이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가졌는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 있다.



60) 김정학, 「한국민족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4.

4.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81)

(1) 국사교과서의 국정제 전환과 민족의식에 입각한 국사교육의 강화

‘조국근대화’를 내세우며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변한 대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도 산업불균형과 심한 대외의존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농촌과 도시 간의 빈부격차도 심해지면서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공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안으로는 사회 통제를 밖으로는 대외의존도 감량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제2경제론’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했다.⁶¹⁾ 교육정책도 박정희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며 진행되었는데, 유신 공포에 앞서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개인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를 주입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도 민족주체성이라는 새로운 국민 통합 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되기 시작했는데,⁶²⁾ 국사도 이른바 ‘국책 과목’으로써 사회과에서 독립,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중시되면서 국사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3년 8월과 12월에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이 제정되었다.

61) 박정희는 제2경제운동을 “우리의 지상 명제인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적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의식을 투철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177쪽.

62)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157쪽.

제3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 교육은 유신 개헌 이후 국민들의 불만을 경제 개발로 돌리고, 민족적 중흥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발전과 민족 통일에 뛰어든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주의적 이념을 띄었다.⁶³⁾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민족의 발전 과정을 학습시키면서 한민족의 정통성을 각인, 국가주의 하에서 국가 발전에 뛰어들도록 양성하고자 했다.⁶⁴⁾ 특히 2학년 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었던 단일민족 의식 교육을 지속하며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확립시키려 했다.⁶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국사 교육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진출 후 당면한 국가적 문제인 경제 개발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⁶⁶⁾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 발행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검정제에서 국정제로의 전환이었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1973년 2월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학교 교육의 상황을 진단한 평가교수단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정화 및 단일화를 건의했다. 문교부는 바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를 채택했다.⁶⁷⁾ 이에 대해 당시 국사교육강화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학생들의 역사관이 고정화되고 단일한 역사 해석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며, 경쟁이 없어 우수한 교과서를

63)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민족적 중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유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서 있다.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64) (가)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 민족의 후예로서의 자랑을 깊이 하게 한다.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65) (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자리잡아 독특한 문화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 성장하여, 하나의 국가 체제 아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을 이해시키고, 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자랑을 깊이 가지게 한다.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66) 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다.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마.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 [문교부령 제350호(1974.12.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67)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208~209쪽.

생산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반대했지만 결국 박정희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정제가 시행되었다.⁶⁸⁾

국정 국사교과서는 이전의 검정 국사교과서에 비해 짜임새가 있고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국정 국사교과서가 지배층 위주로 역사를 서술하고 특정 학자의 학설을 싣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이었던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이나 체제의 통일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사이의 체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타났다.⁶⁹⁾ 그럼에도 국정제는 1977년에 벌어진 ‘검인정교과서 사건’을 계기로 그 해 8월 22일에 교과서 발행제도를 개편하면서 1종도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후 30여 년간 유지되며 국사교과서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국정화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된 내용이 취사선택 된 교과서 서술

제1~2차 교육과정 시기에 검정제였던 국사교과서가 국정제로 전환되면서 1974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배포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 1종도서로 전환되며 집필자들이 교체되었다.⁷⁰⁾

명목상 1종도서로 전환된 제3차 교육과정 시기 후반의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이전 교육과정에서 서술되었던 고대로부터 이어 온 단일민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을 서술하면서 고대 삼국이 같은 동족이었음을 간주하는 민족기원론적 입장의 서술만이 남았다.

다-1-1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 그 때까지는 같은 민족인 삼국이 정치, 사회, 문화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신라의 삼국 통일로 우리 민족은 하나의 문화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평화로운 가운데 삼국의 문화를 합쳐서 찬란한 통일 신라의 문화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대국인

68)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88쪽.

69)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43쪽.

70) 1974년~1975년에 발행된 국정교과서의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실제 교과서를 탐색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4장에서는 1979년에 발행된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국정교과서를 다루고자 한다.

당의 세력을 몰아 내고 민족의 독립을 지킴으로써 신라의 용맹을 떨쳤으니, 이는 길이 우리 민족사의 교훈이 되고 있다. (3-①-1,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통일 신라의 발전, 50쪽)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민족형성론적 입장에 입각해서 서술했는데, 이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 통합의 시기로 설정하며 그 이후를 단일민족으로 간주했다.

다-2-1 민족의 형성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역사에 있어서나, 하나의 종족이 인근 종족과 교섭 없이 고립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 민족도 일찍부터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문화와 교류를 가졌고, 다른 민족과 오랜 동안의 교섭 과정을 거쳐 성장해 온 것이다. (3-②-1, Ⅰ. 고대 사회 / 1. 선사 시대의 문화, 8쪽) … 신라는 여·수, 여·당 전쟁에 뒤이은 나·당 전쟁을 통하여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 내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 때 요하 지역과 장백 산맥 지대를 잃어버렸으므로, 그 뒤 우리 민족의 영역은 한반도에 국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게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신라가 하나의 통일 정부를 세워 같은 제도 아래에서 민족이 뭉치게 된 것은,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뜻깊은 일이었다. 그리고, 여·제 양국의 지배 계급이 무너짐으로써 지배 계급의 수가 적어지고, 옛 신라의 영역보다 3배나 확장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이 그만큼 증가되었다. 이러한 확대된 토대 위에서 문화의 기반도 단일한 것으로 정리되어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3-②-1, Ⅰ. 고대 사회 /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46쪽)

또한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정 국사교과서들을 보면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삭제하고, 고구려의 승리를 민족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이전과 같이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서술하고 있다.

다-3-1 … 그 후에도 당은 몇 차례나 고구려를 침략해 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빛나는 승리로서, 우리 민족

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 (3-①-1, Ⅱ. 삼국의 발전 / 2. 수·당과의 전쟁과 삼국 통일, 31~32쪽)

다-3-2 … 민족의 방파제로 성장한 고구려의 이와 같은 팽창은, 서쪽으로는 요하에서,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3-②-1, I. 고대 사회 / 3. 삼국 시대의 발전, 21쪽)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교과서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같이 민족기원론이나 민족형성론 어떠한 입장에서든 직접적으로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왔다는 서술은 없지만, 삼국통일의 당위성을 서술하면서 고대 삼국은 같은 민족임을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민족형성론적 입장에 입각한 서술을 통해 민족 통합의 역사적 당위성을 교육시키려 한다. 또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통해 고대 삼국이 동질성을 가졌음을 간주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에 서술되었던 것과 같이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했다고 서술하였지만 발해를 한국사로 포함시켜야 했기에 다-4-2의 서술에서와 같이 발해까지 통합한 것을 강조하였다.

다-4-1 … 태조는 그를 후히 대접하는 한편, 신검의 군대를 쳐서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936). 이리하여, 약 반 세기 간 분열되었던 나라는 다시 고려로 통일되었다. (3-①-1, IV. 고려 시대의 생활 / 1. 민족의 재통일과 발전, 71쪽)

다-4-2 … 후삼국으로의 분열은, 옛 고구려, 백제 지역에 대한 신라 귀족들의 수취가 심하여,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왕건은 그 분열의 주요 원인인 수취체제의 결함을 고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삼국을 다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후삼국의 통일과 발해 유민의 포섭은, 분열되었던 민족의 통합을 보다 확고하게 하였다. (3-②-1, Ⅱ. 고려 사회 /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68쪽)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통해 고구려는 같은 동족이었던 백제와 신라를 보호해 준 한국 고대 국가들의 말형이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신라의 삼국통일 서술에서 동족이었지만,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정부 하에 진정한 단일민족으로 통합되었다고 교육하였다. 이를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입하면 남북한은 이미 하나의 혈통·언어·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고, 따라서 지금의 남북분단은 훗날 통일을 위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다.⁷¹⁾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과서 발행제가 국정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에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담은 서술 대신 그 중에서 취사선택 된 서술만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아 학생들의 역사의식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71) 김나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민족 관련 서술의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6쪽.

5.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2~1987)

(1) 신군부의 집권 명분 확보를 위한 민족의식 교육의 지속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살해되면서 유신 정권이 붕괴되자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1980년 10월 27일에 유신 헌법을 일부 수정한 신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공화국이 등장했다.

전두환 정부는 유신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명분으로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등을 내세웠다. 교육과정 개정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1980년 7월 30일에 사교육 금지와 대학 정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31일, ‘제4차 교육과정(1982~1987)’이 고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명분을 그대로 반영하였는데,⁷²⁾ 이는 전두환 정부의 유지를 위한 이념 교육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운 것이었다.⁷³⁾ 구체적으로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서 투철한 국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⁷⁴⁾



72) 제 5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의 교육은,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73)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 역사교육연구회, 1996, 7쪽.

74) 이 교육 과정은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초기에는 통합적인 교육 경험의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점을 두어 구성한다.

4.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가. 사회적 연대 의식

나. 민주, 복지, 정의 사회 건설의 사명감

다. 투철한 국가 의식

라. 민족 문화 창달 의욕

마. 인류 공영 의식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에서는 주체적인 국가관과 연대 의식을 가지게 할 것을 목표로 삼고,⁷⁵⁾ 한국사에서 민족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확립하여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로 양성할 것을 요구했다.⁷⁶⁾ 2학년 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 했다.⁷⁷⁾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전과 같이 민족의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는데,⁷⁸⁾ 곧 사회 성원으로서 국가 발전 및 수호, 민족 통일에 적극 가담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했다.⁷⁹⁾

또한 이 시기에는 소위 ‘재야사학자’라고 하는 국수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이 주도한 국사교과서에서의 상고사 파동이 벌어졌지만 학계의 학자들이 사료 비판과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하면서 유아무야로 끝났다.⁸⁰⁾ 하지만 이를 계기로 고대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교부에서는 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부분을 검토하는 작업을 펼쳤고, 후술에서 다루겠지만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겉으로는 유신 정권과는 다른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전두환 정부 세력의 성향과 아울러 집권 명분의 확보가 필요했기에 종전 시기에 강조되었던 민족의식 교육이 지속되었다.

75) 8) 우리의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국가관과 연대 의식을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76)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3) 우리 조상의 문화 유산을 살펴 현재의 삶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의 계승과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77) 다) 민족 통일의 노력과 해외 활동을 바르게 이해하여, 새 역사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78) 한국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민족 사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배양하며, 자주적인 태도로 민족 중흥에 이바지 하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79) (9)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국가 수호와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80)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09~210쪽.

(2)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지속된 교과서 서술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도 제3차 교육과정 시기 후반과 마찬가지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 서술이 지속되었다.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민족형성론적 입장에 입각하면서 “우리 민족은 …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고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화라는 객관주의적 요소로 단순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다만 삼국통일 전의 민족에 대해서 정치·사회·문화가 달랐지만 같은 민족이라 간주했을 뿐 혈통이나 언어 등 어떤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었는가를 언급하지 못하면서 의문을 불렀다. 또한 삼국통일 이후를 단일민족의 형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민족’이라는 개념상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제시하면서 언어·문화 등 객관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국통일 이전의 고대 삼국이 동질성을 가진 단일민족이라 간주하였고, 신라의 삼국통일은 하나의 통일 정부를 이룸으로써 민족사상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라-1-1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면서 생활 무대를 넓혀 갔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물론, 만주, 요서, 산둥 지방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 여러 지방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 (4-①-1, I. 우리 나라 역사의 여명 / 1. 선사 시대의 생활, 4~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통일 전까지 정치, 사회, 문화를 달리했던 우리 민족은 삼국 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포용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4-①-1, III. 통일 신라와 발해 / 1. 통일 신라의 발전, 52쪽)

라-1-2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계에 속하는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요서,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 아시아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4-②-1, I. 고대 사회의 발전 / 1. 우리 역

사의 시작, 4쪽) … 삼국은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들이지만, 건국 시기, 지리적 위치, 경제 발전 및 대외 관계 등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나타내면서 성장하였다. (4-②-1, I. 고대 사회의 발전 /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20쪽) … 여·제 양국이 망한 뒤, 당이 신라까지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나·당 전쟁을 통하여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 내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 때 요하 지역과 장백산맥 이북 지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 우리 민족의 영역은 한반도로 국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통일 정부를 세워 같은 제도 아래에서 민족이 뭉치게 된 것은,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뜻깊은 일이었다. (4-②-1, I. 고대 사회의 발전 /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48쪽)

또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서술을 지속한 것의 연장선에서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정 국사교과서에서는 여전히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다.



라-2-1 … 고구려는 우리 나라에 침입하려는 중국 세력을 저지하는 한반도의 울타리 구실을 하였으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중국 세력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4-①-1, II. 삼국의 형성과 발전 / 2. 삼국의 대외 항쟁과 통일, 31쪽)

라-2-2 … 그 뒤에도 고구려는 영토 확장 사업을 계속 벌여, 서쪽으로는 요하,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륙의 침략 세력을 막아 주는 민족의 방파제로서의 몫을 하게 되었다. (4-②-1, I. 고대 사회의 발전 /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22쪽)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 한 것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라-3-1 … 이 무렵, 후백제에서는 큰 내분이 일어났는데, 태조는 이 틈을 타서 후백제를 멸망시켰다(936). 그리하여, 약 반 세기 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나라는 고려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다. (4-①-1, IV. 고려 시대의 생활 / 1. 고려의 성립, 75쪽)

라-3-2 ... 후삼국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새 사회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건국한
고려는 민족을 다시 통일하여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4-②-1, Ⅱ. 중세 사회
의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귀족 사회의 성립, 67쪽)

이상 제4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교과서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 후반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민족’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과
신라의 삼국통일 서술을 통해 단일민족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고자 했다.



6.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7~1992)

(1) 교육과정 내용의 지속과 국사교과서의 내용 보강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으로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이 제정되었지만, 제4차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그다지 큰 변화를 준 것은 아니었다.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점으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가 집권을 했고, 무엇보다 당시 한국에서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민족적 자부심을 드높여 국가 발전 및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하고,⁸¹⁾ 민족 통일에 이바지할 인재상을 요구했다.⁸²⁾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대두한 민중사학의 영향을 받아 조선후기사에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삼았고, 근현대사에서 대중운동과 무장독립투쟁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사회주의계 독립운동이 추가되었다.⁸³⁾ 또한 고대사 부분에서도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일어난 상고사 파동의 영향으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펼치면서 1986년에 학계의 중진학자들이 ‘국사교육심의회’를 구성하여 국사교과서에 서술될 내용의 준거를 정하고, 고대사를 비롯한 논란이 되었던 내용 서술의 통일안을 마련했다. 이것이 「국사 교과서 내용 전개의 준거안」으로 정리되면서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발행된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 서술에 영향을 끼쳤다.⁸⁴⁾

81)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 과정을 통해 탐구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5) 향토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새 역사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82) 우리 나라 역사의 흐름을 발전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자주적 역사에 대한 긍지를 지니며, 새로운 역사 창조에 기여하게 한다.

5)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창달과 국가 발전 및 민족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87-7호(1987.3.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83)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18쪽.

84)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반영하고,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만주 요령지방으로

(2) 민족형성론에 중점, 민족기원론도 잔존한 교과서 서술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민족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시작한 민족기원론적 입장을 삭제하고, 민족형성론적 입장에 입각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 형성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일국가·통일 정부를 이루면서 단일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한 이전과는 달리 민족 국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면서 삼국통일의 의의에 대한 서술이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1-1 …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국경선으로 최초의 민족 통일을 이룩하였다. 만주 일대는 비록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에서 벗어났으나, 곧이어 발해가 성립되면서 다시 우리 역사의 무대로 남게 되었다. … 삼국 통일은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 백제 문화는 물론, 당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여, 하나의 국가와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전기를 이룩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삼국 통일 이후 민족 국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통일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5-①-1, Ⅱ. 삼국의 발전과 그 문화 / 2. 삼국의 대외 관계와 통일, 40쪽)

마-1-2 **한민족의 형성** … 빙하기가 끝날 무렵, 신석기인들이 해안이나 강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요서,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 아시아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5-②-1, Ⅰ.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 1. 선사 문화의 전개, 4쪽) … 삼국 통일은, 그 과정에서 외세의 협조를 얻었다는 점과 그것이 대동강 이남의 통일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무력으로 축출한 사실은 삼국 통일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삼국 통일은 민족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고구려, 백제 문화 전통의 수용과 경제력 확충으로 민족 문화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5-②-1, Ⅱ. 고대 사회의 발전 / 2. 고대의 정치와 그 변천, 42~43쪽)

보았다. 또한 고조선의 성격을 규정하고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상고사 서술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10쪽.

하지만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 서술이 지속된 것을 보면 삼국통일 이전에 고대 삼국이 동질성을 가졌음을 간주한 민족기원론적 입장을 넘지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2-1 … 삼국 초기에 고구려는 중국 세력에 맞서 한반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5-①-1, Ⅱ. 삼국의 발전과 그 문화 / 2. 삼국의 대외 관계와 통일, 36쪽)

마-2-2 … 고구려가 중국의 통일 제국인 수·당의 침략을 잇달아 격퇴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을 통한 발전의 한 모습이었으며, 아울러 백제, 신라까지 보호하는 민족 수호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5-②-1, Ⅱ. 고대 사회의 발전 / 2. 고대의 정치와 그 변천, 42쪽)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 한 것으로 서술하였지만 마-3-2의 서술에서와 같이 발해까지 통합한 것을 강조한 서술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발해를 한국사로 포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라와 동등하게 보는 ‘남북국 시대론’의 대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3-1 … 이 무렵, 후백제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크게 내분이 일어났다. 고려는 이 틈을 타서 후백제를 쳐 무너뜨렸다(936). 그리하여 반 세기에 걸친 분열이 수습되고, 민족의 재통일이 이룩되었다. (5-①-1, Ⅳ. 고려 사회의 발전 / 1. 고려의 성립, 87쪽)

마-3-2 **민족의 재통일** … 마침내 고려는 신라를 병합하는 데 성공하였고(935), 이어서 내분이 일어나 분열된 후백제군의 주력을 선산에서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이에 앞서,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 오자, 태조는 이들을 크게 우대하여 민족의 통합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보여 주었다. (5-②-1, Ⅲ. 중세 사회의 발전 / 1. 중세 사회로의 이행, 88쪽)

이상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민족기원론적 입장보다는 민족형성론적 입장에 근거해서 단일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 서술을 통해 삼국통일 이전 고대 삼국이 동족임을 간주한 시각도 여전히 잔존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

(1) 민주화·세계화의 여파로 개방적 민족주의 강조와 국사교육 약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들이닥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국제 사회에서 눌리지 않을 정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다가왔다.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서 야기된 자신감은 선진국에 진입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으로 발전하는 때였다. 이에 소위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를 내걸고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OECD 회원국 참여가 진행되면서 더욱 속도가 붙었다.⁸⁵⁾

이런 배경에서 1992년 6월과 10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으로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이 제정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⁸⁶⁾ 제6차 교육과정은 민주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전의 국가주의적 교육에서 상당히 탈피하면서 새로운 자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라와 개인은 물론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했다.⁸⁷⁾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 시민으로서 거듭나 세계 속에서 한국을 과학적·종합적·주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⁸⁸⁾

85)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27쪽.

86) 실제로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87)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길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게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1992.6.30.)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88)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

가. 현대 사회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지식을 지리적 환경 및 역사의 발전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하게 하고, 세계 속의 우리 사회를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10.30.)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이처럼 다가오는 21세기의 교육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소수의 인적 자원’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에 학생들을 몰아넣으면서 교육계에 큰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⁸⁹⁾ 이런 상황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역사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독립 교과와 지위를 유지하던 국사교과를 폐지해서 사회과에 다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국사교육의 위상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한 비판이 일어났다.

학문의 체계성이 강조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본질적 성격이 다른 역사와 지리, 그 밖의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체계적인 교과내용의 구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무리였다. 또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역사까지 통합하려는 것은 역사인식의 본질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는 사회과 내용의 한 영역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회과에 속하는 한 과목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이처럼 국사교과의 사회과 통합은 역사교육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역사학이나 역사교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⁹⁰⁾ 또한 교육의 다양화 추구를 내세웠음에도 국사교과서 발행은 한 가지 역사관만을 강조하는 국정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의식을 접하기 어려웠다.⁹¹⁾

89)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27~228쪽.

90)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96~297쪽.

91)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정제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교과서가 성전화된다는 점, 교사와 학생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정적 해석만을 심어준다는 점, 교과서 이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90쪽.

(2) 표면적인 개방적 민족주의, 실제로는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교과서 서술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들어서면서 당시 민주화·세계화의 영향으로 표면적으로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교육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다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바-1-1 … 세계화 시대의 역사 의식은 안으로 민족 주체성을 견지하되,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것이어야 한다. (6-②-1,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 2. 한국사와 세계사, 10쪽)

이것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종전과 같이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하기가 어려워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세계의 변영에 기여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개방적 민족주의 교취를 강조하였지만, **바-2-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한국인들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 통일의 시기를 신라의 삼국통일로 설정하고 있는데, 삼국통일의 의미가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식으로 강조점이 변화하였다. 이는 종전과 달리 단순히 영토 통합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객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민족의 형성 시기를 청동기 시대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고대 삼국이 혈연·문화라는 객관주의적 요소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막연한 동족의식이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기에 단일민족이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바-2-1 … 배달 민족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흠어져 살아 왔다. 단군 이후 국가 생활을 시작하여 마침내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루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는 민족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분쟁과 내전이 자주 벌어지는 경우도 있

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으로 국가 생활을 유지해 왔다. (6-①-1, I. 우리 나라 역사와 우리의 생활 / 2. 우리 나라 역사의 특성, 9~10쪽) … 신라의 통일은 그 과정에서 외세의 지원을 얻었다는 점과,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야욕에 대항하여 끈질긴 항쟁을 벌여 이를 물리치고 통일을 완수하였다는 사실은 신라인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최초의 민족 통일로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6-①-1, IV. 통일 국가의 성립 / 1. 삼국의 통일, 69쪽)

바-2-2 민족의 기원 어느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나, 모든 종족은 인근의 종족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선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계에 속하는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요서,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 아시아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6-②-1, I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 1. 선사 문화의 전개, 16쪽) … 통일 신라 사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세워서 뭉치게 되었고, 단일한 민족 문화와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일 이후에 단일한 사회와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삼국 사회가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많이 지녔기 때문이다. (6-②-1, III. 고대 사회의 발전 / 3. 고대의 사회와 경제, 74쪽) … 삼국민은 본래 막연한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당 전쟁을 치르면서 동족 의식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새로 확대된 사회·경제 기반 위에서 각기 개성을 가지면서 발전되어 온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고, 종래 신라 문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6-②-1, III. 고대 사회의 발전 / 4. 고대 문화의 발달, 83쪽)

또한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에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도 여전히 서술되고 있다.

바-3-1 … 이 때의 고구려 세력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까지 미쳤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무렵의 고구려는 동북 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 우리 민족을 중국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막아 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였다. (6-①-1, Ⅲ. 중앙 집권 국가의 형성 / 2. 영토의 확장, 45쪽)

바-3-2 … 이와 같이 고구려가 중국의 통일 제국인 수·당의 침략을 잇따라 격퇴한 것은 중국과의 대결을 통한 발전의 한 모습이었으며, 아울러 백제, 신라까지 보호하는 민족 수호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6-②-1, Ⅲ. 고대 사회의 발전 / 2. 고대의 정치적 발전, 59쪽)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하고, ‘남북국 시대론’의 영향으로 발해의 통합까지 강조하고 있다.

바-4-1 … 고려는 이 틈을 타서 후백제를 쳐 무너뜨렸다(936). 이로써 반세기에 걸친 분열이 수습되고, 민족의 재통일이 이룩되었다. (6-①-1, IV. 통일 국가의 성립 / 4. 고려의 재통일, 94쪽)

바-4-2 … 이리하여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들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6-②-1, IV. 중세 사회의 발전 / 1. 중세 사회로의 전환, 111쪽)

이상과 같이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교과서에서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언급하면서도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한 입장에서 한국 고대사 부분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종전 교육과정 시기에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하면서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를 유발했던 문제로 인해 개방적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학문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개방적 민족주의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전근대 시기에 비교적 일찍 단일민족으로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개방적 민족주의를 고취할 수 있도록 실제 역사 서술을 어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의 고취는 실제적 내용이 없이 주의조항에 그치기만 하였다.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청동기 시대를 민족 형성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은 물론 고대 삼국인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국사교과서에 서술되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요구되었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함에도 실제 국사교과서 내용 서술은 이에 입각하여 서술하기 어렵다는 점, 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자들의 역사의식과 사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 제7차 교육과정 시기(1998~2007)

(1) 민주 시민·세계 시민의 자질 함양과 국사교육의 약화

세계화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교육계에도 들어오면서 특성화고 같은 학교가 확대되면서 평준화의 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과목 간 균형 붕괴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점점 더 중시되어진 반면,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분야는 효율성이 적은 과목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교과 통합은 더욱 추진되는 형편이었다.⁹²⁾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사회과 통합이 더욱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1998~2007)’이 1997년 12월에 고시되면서 2000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인,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것을 당부하고 있고,⁹³⁾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민주 시민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것을 요구했다.⁹⁴⁾ 또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사를 민족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상호 관련적으로 이해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⁹⁵⁾

92)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28쪽.

93)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바. 개인 생활 및 사회 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12.30.)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94) 고등 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12.30.)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95) ‘국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생활의 실체를 밝혀 주는 과목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즉, 국사 교육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확인

그러나 사회과 통합으로 인해 역사 교육이 더 약화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다루어 오히려 경쟁과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전 교육과정과 두드러진 차이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한 것인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고, 또 다른 획일화 교육일 뿐 학생들의 좌절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⁹⁶⁾

(2) 민족형성론 입장을 중시한 교과서 서술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세계화의 물결이 더 크게 들어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전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개방적 민족주의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1-1 … 흔히 현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이는 정보 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점점 세계는 긴밀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화 시대의 역사 의식은 안으로 민족 주체성을 견지하되,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내 것만이 최고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내 것을 버리고 무조건 외래의 문화만 추종하는 것도 모두 세계화 시대에는 버려야 할 달린 사고이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의 시대적 요청은 인류 사회의 평화와 복리 증진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진취적 역사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7-②-1,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 2. 한국사와 세계사, 13쪽)

이에 따라 역사의 시작부터 단일민족으로 출발하였다는 민족기원론적 입장에 입각한 서술은 더 이상 국정 국사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시켜 민족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신을 길러 준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활동상을 민족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상호 관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7.12.30.)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96)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99쪽.

통합과정을 거치며 민족을 형성한 민족형성론적 입장을 강조한 내용이 국사교과서에 서술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교과서에서는 민족 형성의 시기를 청동기 시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 서술에서는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이라는 객관주의적 요소와 막연한 하나의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족형성설에서 단순히 영토·정부 통합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객관주의적·주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한 서술로 변화한 것이다.

사-2-1 우리 민족의 기원과 삶의 터전 … 우리 민족은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적으로는 몽골 인종에 속하고, 어족으로는 터키어, 통구스어, 몽골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남방계보다는 북방계와 관련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 아시아 지역에 넓게 자리잡았던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민족의 기틀을 형성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7-①-1, I. 우리 나라 역사의 시작 / 1. 선사 시대의 생활, 10쪽) 여러 나라의 등장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치다가 사라질 무렵, 그 주변 지역에서는 한민족의 또다른 집단들이 부족 단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7-①-1, I. 우리 나라 역사의 시작 / 2. 국가의 성립, 23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 과정에서 중국 세력인 당의 도움을 얻었다는 점과 대동강 이남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 역사상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 민족이 이른 최초의 통일로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7-①-1,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3. 신라의 삼국 통일, 63쪽) … 신라는 삼국 통일로 영토와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 침략군을 몰아 내는 전쟁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도 생겨났다. 이렇게 달라진 사정에 따라 여러 면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7-①-1, III. 통일 신라와 발해 / 1.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69쪽)

사-2-2 **우리 민족의 기원**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 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 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 역사에 있어서나 모든 종족은 인근에 사는 종족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선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문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7-②-1, Ⅱ.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 1. 선사 시대의 전개, 19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의 이용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 낸 사실에서 자주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고구려·백제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7-②-1,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1. 고대의 정치, 55쪽) 통일 후 신라 사회의 변화 삼국은 상호간에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질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언어와 풍습은 비슷하였고, 복장을 비롯하여 절하는 모습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삼국 통일은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7-②-1,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 1. 고대의 사회, 199쪽)

또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 서술도 지속되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고대 삼국이 동질성과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간주한 것이었다.

사-3-1 … 수·당의 침입에 맞서 고구려가 거둔 승리는 우리 역사상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수·당은 고구려를 정복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이들을 물리침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7-①-1,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 3. 신라의 삼국 통일, 60쪽)

사-3-2 …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7-②-1,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1. 고대의 정치, 54쪽)

한편으로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주목할 만한 서술이 등장하는데, 사-4-1에 제시된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한 서술이다.

사-4-1 … 신라의 삼국 통일이 민족 통일의 출발점이라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옛 삼국 출신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었다. (7-①-1,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발전, 93쪽)

사-4-2 …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7-②-1,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2. 중세의 정치, 65쪽)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미 부여가 적었고, 단지 다시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했다는 것으로 서술되어왔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이전과 같은 내용의 서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국사교과서들과 달리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 통일의 출발점이고, 고려의 통일이 삼국과 발해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라면서 강조점이 변화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최초의 민족통일로 강조하면 발해가 한국사의 무대에서 제외되는 문제, 즉 ‘남북국 시대론’을 의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고려의 통일을 후삼국은 물론 발해 유민까지 통합한 실질적인 통일로 높여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민족기원론적 입장의 서술이 사라지고, 민족 형성론적 입장이 강조되었다. 이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역사의 출발로부터 단일민족이었음을 강조하면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9.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2009)

(1)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한국사 교육의 강조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효율성으로 인해 사회과에 통합되어버린 국사 과목은 역사 교육이 약화되는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침체기를 겪던 국사 과목이 다시 이전의 ‘국책과목’급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배경은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사태였다.

2000년 4월, 일본의 부상사(扶桑社, 후소샤) 교과서가 근현대사에서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왜곡을 벌이고, 2002년부터 중국이 고구려 등 한국 고대사에 대해 왜곡을 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성토 여론이 높아졌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과거 과오에 대한 부정과 만에 하나 재침략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중국의 그것은 아예 한국 고대사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노와 두려움을 불러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에서는 종전의 역사 교육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단순히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만이 아니라 역사 교육 전반에 걸친 자성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도 높게 요구되었던 것은 『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다시 검정제로 되돌리는 문제였고, 이 밖에 친일파 청산 문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탈피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방이나 대립 같은 소모적인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전환점으로 주변국의 역사 교육의 좋은 점을 발전적으로 본받으려 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았다.⁹⁷⁾

마침내 2005년부터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⁹⁸⁾ 새로운 교육과정의 논의에서는 역사 과목이 사회

97)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33쪽.

98) 2005년 「역사교육 강화 방안」은 두 방향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째, 중국의 고조선·고구려사 왜곡 및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교육 강화 필요이다. 둘째, 세계화 및 동북아시아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민족 및 타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정

과에 포함되어서 인문학으로서 역사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 비전공자에 의해 교육되어진 점 등이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이 되었다.⁹⁹⁾ 이로써 한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아우르는 『역사』가 15년 만에 사회과에서 다시 독립 과목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현장 검토와 국민 여론 수렴, 공청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거쳐 마침내 2007년 12월,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09)’이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변화된 주요 특징은 『국사』가 『역사』로 명칭이 바뀐 것과 교과서 발행 체제가 30여 년 만에 검정제로 환원된 것이다. 특히 과목 명칭의 변경은 종전에 자민족 중심주의로 비판받았던 『국사』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사 속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사』로 정립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상과 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¹⁰⁰⁾ 고등학교¹⁰¹⁾ 모두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강조되었던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요구했다.

(2) 검정제로 다양한 민족 형성 시각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한국사교과서들은 교과서 발행 제도가 검정제로 환원된 상황과 이 시기까지 축적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시각의 내용들로 집필되어졌다. 이 시기 한국사교과서들의 고대사 부분 내용에서는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종족이 통합,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민족형성론에 입각한 서술이 확대되었다. 민족형성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한국사교과서들이 많았지만, 대체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준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했

현,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 120, 역사교육연구회, 2011, 4쪽.

99) 남한호·이문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10쪽.

100)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101)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으며 총 8종(중학교 7종, 고등학교 1종)이었다. 다음 아-1-1, 아-1-2, 아-1-4, 아-1-5, 아-1-6, 아-1-7, 아-1-8, 아-1-12 서술이 이에 해당된다.

아-1-1 … 무엇보다도 신라의 삼국 통일은 넓어진 영토를 기반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한편, 신라의 문화 위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8-①-1,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삼국 통일, 79쪽)

아-1-2 … 신라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면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8-①-2,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89쪽)

아-1-3 … 민족은 지구 상의 인간들을 나누는 하나의 단위이다. 피부색이나 얼굴의 생김새 등 신체적인 특징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면서 오랫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민족이 형성되었다. 우리 민족은 몽골 인종에 속한다. 구석기 시대 후기 이래로 만주와 한반도를 터전으로 삼은 몽골 인종의 한 갈래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 옮겨 온 주민과 합쳐져 민족의 기틀을 형성하였고,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특징이 강해져 갔다. 이들은 일찍부터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들은 점차 통일된 나라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의식은 점점 강해졌다. 이와 같이 우리 한민족은 긴 시간 속에서 여러 변화를 겪으며 점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8-①-3,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3.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31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부 세력인 당의 도움을 받았고, 옛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로서, 이를 계기로 한반도를 무대로 한 새로운 역사와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8-①-3,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의 삼국 통일, 76쪽) … 이러한 융합 정책들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는 ‘삼국은 하나’라는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옛 삼국의 주민은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어 갔고, 정치·경제·사회적·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8-①-3,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2.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80쪽)

- 아-1-4 ...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을 몰아냈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자라났다. 신라는 통일 이후 지방 제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8-①-4,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3. 통일 신라의 사회 변화, 89쪽)
- 아-1-5 ... 신라 스스로 당을 몰아내었고, 이후 고구려와 백제 사람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8-①-5,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0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삼국 통일, 84쪽)
- 아-1-6 ... 신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루어 삼국의 백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화를 일구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8-①-6,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고구려의 수 · 당 격퇴와 신라의 삼국 통일, 81쪽)
- 아-1-7 ... 신라가 고구려 · 백제의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 세력을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점과 최초로 민족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삼국 통일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 통일로 서로 간의 문물이 융합되어 민족 문화가 발달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8-①-7,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의 삼국 통일, 96쪽)
- 아-1-8 ... 삼국 백성 사이의 통합이 강화되어 우리 민족 형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포용하고 경제력을 늘림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①-8,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02. 한반도의 주인이 된 신라, 89쪽)
- 아-1-9 ...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을 이루었으며, 주변의 여러 문화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8-②-1,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1. 우리 민족의 기원과 선사 문화, 14쪽)
 ... 삼국 통일은 당의 세력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 지역을 통일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당의 세력을 물리친 자주적 성격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②-1,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31쪽)

아-1-10 **고조선, 강국으로 발전하다** 중국이 전국 시대에 잦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유이민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 기원전 3세기 말, 중국에서 진과 한이 교체되는 혼란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8-②-2,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2. 고조선이 세워지고, 여러 나라가 나타나다, 19쪽) … 이로써 신라는 당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676). (8-②-2,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4. 신라, 삼국을 통일하다, 32쪽)

아-1-11 … 우리 조상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을 이루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선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문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은 독특한 동방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8-②-3,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1. 선사 문화와 한민족의 형성, 17쪽) … 주제심화학습] 우리 민족의 기원 / 탐구 자료 1 - 민족의 개념 … 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종족 간의 이동과 동화가 일어났다. 삼국 시대 말기에 동질성을 형성하였으며, 나 · 당 전쟁과 통일 신라를 거치면서 삼국의 주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통하여 동족의식이 표면화되었다. (8-②-3,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2. 고조선과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 2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비록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우리 역사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국가 체제 속에 들어 있다가 하나의 국가 안에 통합됨으로써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8-②-3,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고대 국가의 발전, 31쪽)

아-1-12 … 이로써 마침내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영토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삼국 주민 간의 통합이 강화되어 우리 민족 형성의 기틀을 다졌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②-4,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4. 삼국의 발전과 항쟁, 28쪽)

아-1-13 …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방에는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정착한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에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로 이주해 온 여러 계통의 이주민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8-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1. 선사 문화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기원, 1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최초의 민족 통일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신라가 백제 및 고구려의 유민들과 힘을 합해 외세인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백제·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통합하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었고, 이후 민족 문화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8-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4. 남북국 시대의 성립과 발전, 39쪽)

아-1-14 … 우리 민족 형성의 기초를 이룬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에 요령,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한 주민들이라고 짐작된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 등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 문화의 주인공이 중국의 고대 문헌에 나오는 예(潑), 맥(貊), 한(韓) 등의 종족이다. 이들 종족이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삼한 등 여러 나라를 세웠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8-②-6,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1. 동트는 우리 역사, 1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영토상으로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당 세력을 끌어들이었다는 한계를 보였으나,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②-6,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삼국, 교류와 경쟁 속에서 발전하다, 29쪽)

반면에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설정한 교과서도 총 6종(중학교 1종, 고등학교 5종)이었는데, 다음 아-1-3, 아-1-9, 아-1-10, 아-1-11, 아-1-13, 아-1-14 서술이 해당된다.

또한 민족의 개념과 형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문화 등 객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하거나(아-1-1, 아-1-2, 아-1-5, 아-1-6, 아-1-7, 아-1-9), 공동체 구성원들이 막연한 동질성을 느끼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되었다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중시(아-1-3, 아-1-4, 아-1-8, 아-1-10, 아-1-11, 아-1-12, 아-1-13, 아-1-14)하는 등 시각 차이도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같은 민족의 형성 시점과 형성 요소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느냐의 시각 차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에 대한 한국사교과서의 서술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2-1 ... 고구려는 수와 당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 냄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에 우리 민족의 국가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8-①-1,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삼국 통일, 77쪽)

아-2-2 ... 한편, 고구려의 승리는 백제와 신라로 하여금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울러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8-①-2,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85쪽)

아-2-3 ... 수 · 당의 계속된 침입을 막아 낸 고구려는 자신은 물론 결과적으로 백제나 신라까지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8-①-3,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의 삼국 통일, 73쪽)

아-2-4 ...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노렸던 중국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은 점차 약해졌다. (8-①-4,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고구려와 수 · 당의 전쟁, 83쪽)

아-2-5 ... 그 후에도 고구려는 당의 침입을 몇 차례 받았으나, 이를 모두 물리쳤다. 이로써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동아시아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8-①-5,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0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삼국 통일, 80쪽)

아-2-6 ... 고구려가 수와 당을 잘 막아 냄으로써 우리 민족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8-①-6,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고구려의 수 · 당 격퇴와 신라의 삼국 통일, 77쪽)

아-2-7 ... 고구려는 강인한 군사력과 뛰어난 전술, 성곽 기술 등에 힘입어 수와 당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수와 당의 야욕을 물리치고 한반도 전체를 보호하였다. (8-①-7,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1. 신라의 삼국 통일, 93쪽)

아-2-8 …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은 이후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협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8-①-8, Ⅲ. 통일 신라와 발해 / 01.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 86쪽)

아-2-9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고구려는 을지문덕이 주도한 살수 대첩 등을 통해 수의 거듭된 침입을 물리쳤다(612). 수가 망한 뒤 중국을 재통일한 당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끈질기게 저항하여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645). (8-②-1,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31쪽)

아-2-10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은 세력 확대를 꾀하며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수 · 당의 침략을 막아내는 동안 백제는 신라를 자주 공격하였다. (8-②-2,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4. 신라, 삼국을 통일하다, 32쪽)

아-2-11 … 고구려가 수 · 당의 잇단 침략을 막아낸 것은 국가를 보존하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의미가 있다. (8-②-3,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고대 국가의 발전, 30쪽)

아-2-12 … 이후에도 고구려는 몇 차례 계속된 당의 공격을 모두 물리쳤다. 이후 당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라와 친선 관계를 강화하였다. (8-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4. 남북국 시대의 성립과 발전, 37쪽)

아-2-13 … 고구려는 수 ·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고구려 자신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까지도 보호하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 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로 인해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8-②-6,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 3. 삼국, 교류와 경쟁 속에서 발전하다, 28쪽)

이상 제시된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사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설정, 문화 등 객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대 삼국이 동질성을 갖고 있었음을 간주하며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아-2-8, 아-2-9, 아-2-10, 아-2-12 서술과 같이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삭제한 한국사교과서들도 있었는데, 단지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냈을 뿐이라고 서술하거나 전후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대 삼국이 막연한 동족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반영해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서술하는 것을 회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⁰²⁾ 즉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설정,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나 동족의식 등 주관주의적 요소를 중시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의 통일에 대해서는 청동기 시대나 삼국통일을 민족 형성의 시점으로 파악하여서 민족 재통일이라고 서술한 한국사교과서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3-2, 아-3-3, 아-3-4, 아-3-5, 아-3-7의 서술과 같이 중학교의 한국사교과서 5종에서는 ‘남북국 시대론’을 의식하여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라 서술하였는데, 민족 재통일이었던 서술이 혼재하기도 했다.

아-3-1 …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나아가 민족의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형성하였다. (8-①-1,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제도의 정비, 109쪽)

아-3-2 … 고려는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받아들임으로써, 후삼국과 발해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진정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고려는 신라와 옛 고구려, 백제 출신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려는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 더욱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102)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을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정치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2006, 149쪽.

위한 복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방 민족과 항쟁하며 강렬한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다. 그러므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 민족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민족 통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8-①-2, VI.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 113~114쪽)

아-3-3 역사 자료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의의 첫째, 신라의 삼국 통일이 옛 고구려의 영토를 잃어버린 불완전한 통일이었던 데 비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옛 삼국 출신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었다. 둘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한민족이 완전하게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8-①-3,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성립, 99쪽)

아-3-4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한민족이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고려는 지방의 호족 세력, 새로운 사상을 지닌 지식인 계층의 도움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비하여 훨씬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또한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의 사상을 비롯하여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옛 고구려, 백제 출신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었다. (8-①-4,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118쪽)

아-3-5 ...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까지도 통합하여 남북국을 아우르는 민족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민족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8-①-5,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01. 고려의 건국과 체제 정비, 107쪽)

아-3-6 세 나라를 다시 하나로 ... 고려는 견훤을 앞세우고 마지막 전투에 나서 사기가 꺾인 후 백제를 큰 힘 들이지 않고 물리쳤다. 고려는 마침내 후삼국 시대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8-①-6,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왕권 안정, 109쪽)

아-3-7 민족의 재통일과 태조의 정책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무찌르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 또한, 민족 통합을 위해 통일 신라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나 백제 출신의 지방 세력을 지배 세력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거란에 망한 발해의 유민들까지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8-①-7,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121~122쪽)

아-3-8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단지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한 것만이 아니었다.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임으로써 민족의 재통합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적인 전통을 흡수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결국 고려의 통일은 민심을 수습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새로운 세력들이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8-①-8, IV. 고려의 성립과 발전 / 01.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122쪽)

아-3-9 … 이어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 쇠약해진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였고, 이어 고려는 내분으로 혼란스러운 후백제를 정복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한편,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하여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8-②-1, II.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성립과 발전, 48쪽)

아-3-10 고려, 민족을 재통일하다 … 다음 해 후백제에서 지배층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고려에 항복을 해 왔다. 태조는 이 틈을 타 후백제를 공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8-②-2, II.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후삼국을 통일하고 체제를 정비하다, 46쪽)

아-3-11 …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8-②-3, II.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정치와 사회 변동, 44쪽)

아-3-12 …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918). 그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936). (8-②-4, II.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 38쪽)

아-3-13 …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에 입각하여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신라와 후백제를 병합함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8-②-5, Ⅱ.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고려의 건국과 집권 체제의 구축, 53쪽)

아-3-14 … 한편, 발해가 거란에 멸망하여(926), 왕자 대광현이 많은 고구려계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에 망명해 오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받아들였다.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을 비롯하여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완수하였다. (8-②-6, Ⅱ.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민족을 재통일하여 발전한 고려, 43쪽)

이상과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한국사교과서들은 민족형성론적 입장에서 한국 고대사의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다만 교과서 발행제가 다시 검정제로 환원된 영향으로 인해 청동기 시대·신라의 삼국통일·고려의 후삼국 통일 등 민족 형성의 시점과 객관주의적·주관주의적 요소 등 민족 형성의 요소가 제각기 다르게 파악되거나 중시되는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였다.



10.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10~2015)

(1) 정쟁으로 이름만 바뀐 한국사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역사 교육 전반에 걸친 자성과 개혁을 이끌고자 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적용되어보지 못했다. 2008년에 정권이 교체되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또 개발해서 2009년 12월, 2010년 5월에 각각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2010~2015)’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했다.

그렇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과목의 시수가 줄어들어 위상이 약화된 점, 공통과정이 중학교까지만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바뀐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¹⁰³⁾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문화사』라는 이름의 한국사 과목이 계획되었지만 폐지되었는데, 이에 한국사 교육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명칭을 『한국사』로 바꾸었고, 중학교 과정에서만 『역사』 과목이 유지되었다.¹⁰⁴⁾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이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¹⁰⁵⁾ 또한 한국사와 세계사를 상호 연관시켜서 이해하여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주체적·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려 했다.¹⁰⁶⁾

103) 남한호·이문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 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11쪽.

104)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41쪽.

105)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라.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106) ‘역사’ 과목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 중학교 사

(2)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 탈피와 잔존이 공존한 교과서 서술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한국사교과서에도 이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통합·형성된 민족형성론에 입각하여 한국 고대사 내용이 서술되었다. 대다수의 한국사교과서들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의 형성 시점으로 파악해 서술했지만, 그 외 7종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민족 형성 시점으로 파악하여 고대 삼국이 동질성을 지닌 동족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서술은 자-1-10, 자-1-11, 자-1-12, 자-1-13, 자-1-14, 자-1-15, 자-1-17이다.

자-1-1 ... 원래부터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득하게 오래된, 그리고 복잡한 역사를 통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봄으로써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란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 형성된 내력을 이야기해 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9-①-4,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7쪽) ... 신라의 삼국 통일과 함께 세 나라의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삼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 민족문화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경험은 이후의 역사에서 다시 여러 나라로 분열하는 시기가 찾아와도 재차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 왔다. (9-①-1, 3.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수 · 당과의 전쟁과 삼국 통일, 91쪽)

회과 교육과정]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발전되어 온 과정을 세계사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 이를 통해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발휘해 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능동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학습자의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토대로 둔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게 한다. ... 또한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로써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인류 역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학습의 주안점을 둔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2009.12.23.)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자-1-2 ... 그리하여 삼국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어 갔으며, 삼국 문화가 융합되어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함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 백성이 오랜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9-①-2,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02 신라의 삼국 통일, 87쪽)

자-1-3 ... 신라는 고구려 · 백제의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삼국 백성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삼국의 문화가 융합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통일 후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제한적이거나 이들의 관직 참여를 인정하는 등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한 점에서 삼국 통일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9-①-3,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83쪽)

자-1-4 ... 신라가 백제 · 고구려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는 점, 우리 민족 형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수용하여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9-①-4,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수 · 당과의 전쟁과 삼국의 통일, 89쪽)

자-1-5 ... 더불어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세계 역사와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며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동아시아 각국과 관계를 맺으며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지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9-①-5,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6쪽) ... 신라는 고구려 · 백제의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을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고, 민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삼국의 문물이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9-①-5,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88쪽)

자-1-6 ... 특히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자라났다. 또한, 삼국 통일로 삼국의 문화가 통합되어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9-①-6,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69쪽)

자-1-7 ... 우리는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각하며 살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목적 중의 하나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9-①-7,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①-7,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83쪽)

자-1-8 ... 한국사는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었다. 여러 나라의 흥망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한국사의 줄기가 형성되었다. ... 원래부터 한국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되었다. (9-①-8,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로,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당의 세력을 이용하고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통일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 (9-①-8,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88쪽)

자-1-9 ... 신라는 삼국과 당, 일본이 서로 경쟁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이룩하였다. ... 또한 통일 후 신라는 민족 융합 정책을 실시하여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9-①-9,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80쪽)

자-1-10 ... 한민족의 형성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많은 사람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주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형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으로 상징되는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신석기

인들이 사용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청동기인들이 만든 비파형 동검 또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먼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새로 유입해 온 청동기인들이 긴 세월을 거치면서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가 성립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들을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종족으로 구분하여 동이(東夷)라 부르기도 하고, 예(濊), 맥(貊), 한(韓)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삼한을 세운 중심 세력으로, 이후 우리 민족의 주류를 이루었다. (9-②-1,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1 선사 문화와 한민족의 기원, 14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화가 단일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②-1,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3 삼국과 가야, 33쪽)

자-1-11 …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방에 거주하던 여러 집단이 공동체로 조직화되고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천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긴 시간이 흐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완성되어 나갔을 것이다. (9-②-2,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 선사 시대의 문화와 우리 민족의 형성, 15쪽) … 또한, 백제와 고구려의 일부를 통합하면서 통합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결국,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새로 확대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여 문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9-②-2,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 41쪽)

자-1-12 …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으나, 이들은 오늘날의 한국인과 차이가 난다.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주민들이 우리 민족의 토대를 이루었고, 이들은 그 뒤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한국인이 형성되었다. (9-②-3,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1 선사 시대의 문화, 20쪽) … 삼국 통일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신라가 이어받아 진행한 결과였다. 이는 우리 민족과 중국이 8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결과 압록강 일대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삼국 통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 통일이었다. 삼국의 영토, 사람, 문화가 비로소 하나로 통합되어 민족 문화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9-②-3,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44쪽)

자-1-13 … 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일대에는 주변 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농경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혈연적 유대감과 언어 등 공통의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점차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시에 주변 지역과 교류하면서 문화의 폭을 넓혀 갔다. (9-②-4,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1 선사 문화의 전개와 민족의 기반 형성, 23쪽) … 이로써 삼국은 한 나라로 통일되고 사람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각기 나뉘어졌던 삼국의 경제력이 통합되고 문화가 융합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굳건하게 놓였다. (9-②-4,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56쪽)

자-1-14 …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는 몽골 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튀르크 어파, 몽골 어파, 만주 · 통구스 어파를 포함하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삼국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을 이루어갔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형성되었다. (9-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 우리 민족의 형성, 13쪽) … 또한, 고구려와 백제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여 삼국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 (9-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41쪽) … 삼국은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도 언어나 풍습 등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나 · 당 전쟁을 치르면서 동족 의식이 강화되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통합하고 계승하여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②-5,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6. 고대 국가의 문화 발전과 교류, 61쪽)

자-1-15 …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에 만주와 한반도를 터전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몽골 인종의 한 갈래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계열의 이주민들이 합쳐져 우리 민족의 기틀을 이루었다. (9-②-6,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1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선사 문화, 12쪽) … 그러나 고구려 · 백제의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을 몰아내어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 · 고구려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9-②-6,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 43쪽)

자-1-16 … 마침내 신라는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밀어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삼국 통일로 신라는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민족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9-②-7,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4. 신라,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다, 34쪽)

자-1-17 …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는 전기에 덧무늬 토기, 그 이후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며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이 널리 정착하여 살았다. 이들이 한민족 형성의 기초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로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 고인돌 등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등장하였다. 이 문화의 주인공이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예(濊), 맥(貊), 한(韓) 등의 종족이다. 이들 종족이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삼한 등 여러 나라를 세웠고, 오늘날 한민족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9-②-8,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 동트는 우리 역사, 15쪽) … 신라의 삼국 통일은 … 오랜 전쟁을 끝냄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②-8,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2. 삼국의 성립과 정치 발전, 31쪽) … 한국사 백과] 삼한이 한 집안을 이루다 삼국은 오랫동안 대립하고 다투었지만 혈연, 언어, 문화 등에서 일정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 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삼국인들은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텄다. (9-②-8,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3. 남북국의 정치 발전, 33쪽)

특히 중학교 한국사교과서들에서는 원래부터 한국인이라 부를 수 있는 단일민족은 없었다면서 오랜 역사에서 영광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자연스레 한민족이 형성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역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민족은 여러 갈래의 종족들이 점진적으로 혼합되면서 형성된 민족형성론에 입각하여 교육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도 잔존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민족이 형성된 시각에 따라 고대 삼국이 동족이었음을 간주하며 서술되었으나,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의 형성 시점으로 파악한 한국사교과서들(자-2-1, 자-2-2, 자-2-3, 자-2-5, 자-2-6, 자-2-8, 자-2-9)에서도 이같이 서술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 삼국통일 이전 고대 삼국이 동족의식을 가졌다고 간주하도록 하고,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내용과 모순을 보이는 교과서 서술의 일관성에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천재교육의 중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의 서술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 삭제(아-2-8)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다시 서술(자-2-8)되기도 했다. 이는 같은 출판사, 같은 저자가 집필하였음에도 과거에 학습한 시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2-1 ... 수와 당의 거듭된 대규모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한반도 남쪽의 국가들도 중국 세력의 직접적인 침략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민족 전체의 활동 무대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가 수·당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우리 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9-①-1, 3.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수·당과의 전쟁과 삼국 통일, 87쪽)

자-2-2 ... 고구려는 수·당의 계속된 침략을 막아 내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9-①-2,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81쪽)

자-2-3 … 한편, 고구려의 승리는 백제와 신라로 하여금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민족을 구한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9-①-3,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79쪽)

자-2-4 … 그리하여 고구려는 수 · 당이 강요하였던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 고구려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9-①-4,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수 · 당과의 전쟁과 삼국의 통일, 85쪽)

자-2-5 … 고구려는 성곽을 이용한 전술과 강인한 군사력으로 수와 당의 계속된 침략을 막아 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수와 당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보호하였다. (9-①-5,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84쪽)

자-2-6 … 고구려는 수 · 당의 침략을 막아내어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9-①-6,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67쪽)

자-2-7 …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던 수와 당의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켜냈다. 그 결과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복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9-①-7,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80쪽)

자-2-8 …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당은 이후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협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9-①-8,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신라의 삼국 통일, 84쪽)

자-2-9 … 이처럼 고구려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수와 당의 야욕을 물리쳤다. 아울러 중국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

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9-①-9,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1.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76쪽)

자-2-10 … 고구려가 수 · 당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9-②-1,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3 삼국과 가야, 32쪽)

자-2-11 … 고구려가 중국의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9-②-2,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3. 삼국과 가야의 발전과 대외 관계, 29쪽)

자-2-12 …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그 후에도 당은 랴오허 강과 압록강 어귀 방면으로 침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9-②-3,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43쪽)

자-2-13 … 이로써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도 지켜낼 수 있었다. (9-②-4,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1-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55쪽)

자-2-14 …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쳐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하였지만,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다. (9-②-5,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39쪽)

자-2-15 … 645년 대군을 이끌고 침략에 나선 당 태종은 랴오허 강 일대의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로 무너뜨린 뒤 서쪽 변경에 있는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당의 공격을 물리쳤다(안시성 싸움). 이후에도 고구려는 몇 차례에 걸친 당의 침입을 물리쳤다. 결국 고구려 정복에 실패한 당은 신라와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친신라적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9-②-6,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0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 41쪽)

자-2-16 … 고구려는 전쟁에 승리하여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연개소문에 대한 불만도 커져 갔다. (9-②-7,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4. 신라,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다, 32쪽)

자-2-17 … 수 · 당을 물리친 고구려는 결과적으로 백제, 신라까지도 중국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9-②-8,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2. 삼국의 성립과 정치 발전, 29쪽)

하지만 자-2-4, 자-2-7, 자-2-12, 자-2-15, 자-2-16의 서술과 같이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을 삭제하고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냈을 뿐이라고 서술한 한국사교과서도 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4종(중학교 1종, 고등학교 3종)보다 1종 더 늘어난 5종(중학교 2종, 고등학교 3종)의 한국사교과서가 해당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이 미래엔의 중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보여지는데, 해당 부분의 서술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 서술(아-2-4)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삭제(자-2-7)된 것이다. 현재 교육의 중학교 한국사교과서와 달리 이전보다 한층 진일보한 모습이였다.

고려의 통일에 대한 내용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최초의 민족 통일, 민족 형성기로 파악하여서 재통일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남북국 시대론’을 의식하여 고려의 통일이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라 서술한 한국사교과서도 7종(중학교 4종, 고등학교 3종)으로 이전 교육과정 시기보다 더 늘어났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와 달리 고등학교의 한국사교과서에도 확대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자-3-1, 자-3-4, 자-3-6, 자-3-7, 자-3-11, 자-3-13, 자-3-16의 서술이 이에 해당한다.

자-3-1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옛 고구려 땅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세워졌으므로 완전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었다. 반면, 고려는

후삼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발해가 멸망한 이후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의 유민들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완전한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 고려는 통일 신라와 발해를 이어 옛 삼국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융합하여 새롭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창조하였다. (9-①-1, 4.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123쪽)

자-3-2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이룬 통일이었다.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 냈다. 이로써 고려는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9-①-2,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115쪽)

자-3-3 … 고려는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임으로써, 후삼국과 발해까지 포함한 민족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진정한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통합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고려는 신라와 옛 고구려 및 백제 출신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려는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 더욱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복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방 민족과 항쟁하며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다. (9-①-3,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후삼국 통일과 태조의 정책, 109~111쪽)

자-3-4 … 고려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신라 골품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특히 후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통합하고, 발해가 망한 후 그 유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 … 이후 고려는 약 500년 동안 통일 왕조를 지속해 나가면서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9-①-4,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다시 통일을 이룬 고려, 114쪽)

자-3-5 … 고려는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신라에 비하여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또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한 것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9-①

-5,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건국과 귀족 사회의 형성, 117쪽)

자-3-6 ...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 출신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하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9-①-6,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 체제 정비, 94쪽)

자-3-7 깊이 있는 역사 이해 - 후삼국 통일의 의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통합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고려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다양한 지방 세력을 지배층으로 포섭하는 한편,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태조 17년(934)에는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이는 고려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준다. (9-①-7,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108쪽)



자-3-8 ...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거란에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후속 세력과 새로운 사상을 지닌 지식인 계층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골 중심의 신라에 비해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훨씬 확대되었다. (9-①-8,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성립과 발전, 115쪽)

자-3-9 ...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인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하였다. (9-①-9,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 1.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109쪽)

자-3-10 후삼국 통일의 의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외세의 도움 없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고려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 세력을 지배층으로 포섭하는 한편,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9-②-1,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01 고려의 성립과 발전, 63쪽)

- 자-3-11 …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9-②-2,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55쪽)
- 자-3-12 …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에서도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많은 유민이 고려로 망명하였다. 고려는 이들을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냈다. (9-②-3,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01 고려의 성립과 발전, 74쪽)
- 자-3-13 … 이에 왕건은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9-②-4, 2.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2-1 고려의 건국과 발전 / 1)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다, 90쪽)
- 자-3-14 왕건, 고려를 건국하고 민족을 재통일하다 … 이에 태조는 후백제의 신검을 공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9-②-5,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발전, 73쪽)
- 자-3-15 1) 고려, 민족을 다시 통일하다 … 이후 고려는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9-②-6,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01 고려의 건국과 동아시아의 정세, 68쪽)
- 자-3-16 … 936년 고려는 후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한편, 고려는 망명해 온 발해 유민을 적극 포용하였다. (9-②-7,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1. 통일을 달성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다, 59쪽)
- 자-3-17 … 이로써 고려는 후삼국을 비롯하여 발해의 고구려계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하였다. (9-②-8, II.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1.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63쪽)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세계화·다문화의 영향이 점점 증가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종전보다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고대사 부분 서술이 많이 삭제되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한민족이 형성된 민족형성론에 입각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서술되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 서술로 인해 민족 형성의 시점이 청동기 시대 혹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 구분 짓게 하는 등 민족 형성의 시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고구려의 민족 방파제 역할론 서술의 삭제와 잔존의 모습을 통해 교과서 집필자들의 역사의식과 사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요인 등으로 이전의 성과가 퇴보하거나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와 시각이 적극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맺음말

지금까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한국사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왔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서술된 한국 고대사 부분의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내용이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서술되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는 문제에 주목해서 왜 그렇게 서술되었는지, 한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거의 교육과정 시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기 처한 시대적·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대사 부분에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일민주의’에서 비롯된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하며 북진통일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족기원론에 입각하여 한국 고대사 부분의 내용이 국사교과서에 서술되었지만, 교과서 집필자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은 것과 아울러 교과서 검정제의 특성으로 인해 민족기원론과 민족형성론 입장이 공존한 시기였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조국근대화’ 달성을 위해 단일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에 민족기원론에 입각한 내용을 서술한 국사교과서가 증가하였고, 고대 삼국이 한 핏줄을 나눈 단일민족임을 간주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만선사관에서 비롯된 고구려 민족 방파제 역할론이 등장하며 이후 국사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국사 과목은 ‘국책 과목’으로써 사회과에서 독립, 국사 교육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국정제로 바뀌어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정부의 입맛대로 집필하기가 더 용이해졌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한국 고대사의 서술들이 이전 교육과정의 서술에서 취사선택되었고, 이는 자연히 학생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군사 정권의 집권 명분 확보를 위해 민족의식 교육을 지속하였고, 직접적으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도 이전 교육과정 내용을 지속했으며 국사교과서 서술에서는 민족형성론에 입각하였지만 넉넉히 민족기원론도 강조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들어 민주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표면적으로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가질 것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된 고대사 부분의 서술이 지속되었다. 이것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역사 의식과 사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점,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는 시기가 늦는 점 등 이른바 ‘교과서의 보수성’과 실제 국사교과서 내용 서술이 당시 시대적 요구에 입각하여 서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효율성만이 강조되면서 역사는 사회과에 통합되어 버렸고, 그 여파로 역사 교육이 약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도 역사의 사회과 통합이 지속되어 역사 교육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갔다. 그럼에도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 시민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했고, 국사교과서에는 민족형성론에 입각한 내용을 서술했다. 또 ‘남북국 시대론’이 자리를 받으면서 고려의 통일을 삼국과 발해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로 강조했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사태를 겪으면서 침체기를 겪던 국사 과목은 이전의 ‘국책과목’급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 제정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를 배경으로 삼아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특히 『국사』라는 명칭은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 세계사 속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사로 정립되면서 『역사』와 『한국사』라는 명칭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들은 발행 제도가 검정제로 환원되었다. 이에 민족형성론에 입각한 내용이 서술되었지만 민족 형성의 시점이 청동기 시대, 삼국통일, 고려의 통일로 각기 제시되는 등 다양한 시각의 서술들로 집필되어져 공존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 고대사 부분 서술에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많이 탈피되었지만, 그럼에도 ‘교과서의 보수성’으로 인해 각론에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잔존하는 등 아직까지 한국 고대사 인식에 단일

민족 의식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단일민족 서술은 시대마다 변천되어 오며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각 시대마다 국가 교육과정의 요구대로 한국 고대사의 내용들이 해석되어 집필되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인들에게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이어왔다는 단일민족신화를 심어주어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유발시킨 면이 없지 않았다.

역대 중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내용이 집필되도록 만든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과 여기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고찰해보면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현실과 관점에 맞추어 해석·이용당하기 쉽다는 새삼스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집필되는 한국사교과서에서의 민족 서술은 관념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명확한 근거와 실체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민족 의식에 입각한 역사 서술에서 탈피하고, 좀 더 명확한 민족 개념과 민족 형성 시점을 규명한 서술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 다음 세대의 국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단일민족 신화라는 기성세대의 통념을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며 한국 고대사의 진면목이 근대의 민족 개념에 역지로 끼워 맞춰지지 말고 되도록 당시의 실체 그대로 해석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과정 문서

- [문교부령 제45호(1955.8.1.) - 중학교 사회 생활과 교육과정]
- [문교부령 제46호(1955.8.1.)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문교부령 제120호(1963.2.15.)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문교부령 제121호(1963.2.15.)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문교부령 제350호(1974.12.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문교부 고시 제87-7호(1987.3.31.) -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6.30.)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10.30.)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12.30.)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12.30.)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단행본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학, 2011.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6.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2006.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 강철구 역,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명경, 1996.

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 이재석 역,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1988.

칼톤 헤이즈(Carlton Hayes), 차기벽 역, 한길사,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1981.

논문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19,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권태억·정용욱 외,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김나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민족 관련 서술의 추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미월,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 인식과 서술 - 고대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상훈,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중·고등학생들의 의식과 『국사』교과서의 관계」, 『한국고대사탐구』 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김정학, 「한국민족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4.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김진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7, 역사비평사, 1991.

, 「국사교과서 연구의 동향 2」,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 ,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 남한호·이문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21, 역사비평사, 1992.
-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 역사교육연구회, 1996.
- 박만규, 「교육과정의 검토와 개선의 구상」, 『새교육』 11권 1호, 1959.
-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박찬흥, 「만선사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동북아역사재단, 2005.
- 배진우, 「중학교 국사교과서 고대사 영역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서술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성대훈,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 서술 문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민족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양정현,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의 ‘민족’ 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83, 역사교육연구회, 2002.
- ,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 120, 역사교육연구회, 2011.
- 역사문제연구소, 「대토론 : 한국민족은 언제 형성되었나」, 『역사비평』 21, 1992.
- 오수창, 「조선시대 국가, 민족체의 허와 실」,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이기동, 「기원 연구의 흐름」,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이부오, 「2011년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나타난 고대사 서술의 변화」, 『신라사학보』 24, 신라사학회, 2012.
- 전종익,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연주, 「국정 중등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채웅석, 「고려시대 민족체 인식이 있었다」, 『역사비평』 58, 2002.
- 최승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용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대외항쟁사' 서술비판 : 자국사중심 서술의 비판과 대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스 콘(hans kohn), 백낙청 역,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93.

신문기사

- 라동철, 「외국인 주민 200만명 육박… 단일문화 집착 버려야」, 『국민일보』 2015년 8월 24일자.
- 임지현,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3일자.

